

2017. 07.20-

암수살인 暗數殺人

: 실제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 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살인 사건

투자 배급 (주)쇼박스

제작 (주)필름295/(주)블러썸픽쳐스

각본 곽경택/김태균

감독 김태균

[이야기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 EXT. 자갈치 시장-DAY

뿌연 비 안개 속

멀리 영도 다리가 보이고 카메라가 천천히 내려 오면 부산 자갈치 시장의 북적이는 모습.

비닐 천막을 덮은 파라솔 아래에서 장바구니를 든 행인들과 고함을 치는 상인들.

나무 상자를 실은 리어커들 사이로 부릉부릉~ 지나는 오토바이.

시장바닥에 파닥거리는 생선들 너머로 세련된 운동화와 낡은 쪼리가 지나가고

우산 속에 머리를 넣은 채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걷는 두 사람.

여개가 다 젖은 재킷 차림의 **형민**(40 대)과 마치 해골처럼 깡마른 **정봉**(30 대).

형민

누가 죽었다는데?

정봉

(절레절레)

그런 말은 안 했어예.

형민

내한테는 말 한다드냐?

정봉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자는 거 아닙니까?

2 INT. 칼국수 집-DAY

좁은 칼국수 집 안으로 들어서는 형민과 정봉.

주방의 끓는 물 때문에 좁은 공간에 수증기가 가득하고

힘겹게 덜거덕거리는 선풍기 아래로 가 앉는 두 사람.

바로 옆 방 좌식 테이블에서 밀가루 반죽을 말아 칼질을 하는 아줌마.

아줌마

곱빼기? 아이은 보통?

정봉이 꿩한 눈으로 쳐다보며

정봉

있다가 한 사람 더 올 낀데

아줌마

이가 커파습이가? 보이가 많이 무야 되겠구만. (주방에다) 곱빼기 셋~

정봉이 별 상관 없다는 듯 씩 눈길을 돌리다

정봉

아, 오네

드르득 미닫이 문이 열리자 힐끔 돌아보는 형민

흠뻑 비에 젖은 태오(30 대), 정봉에게 쓱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한다

추리한 용모를 한 채 주섬주섬 형민 쪽으로 다가오는 태오

더벅머리에 뿌연 성애가 낀 안경 때문에 멍해 보이는 얼굴로 꾸벅 인사하며

태오

강태웁니다

형민

어, 그래. 왔어라

CUT TO

후루룩 짹짹 칼국수를 먹는 세 사람

김치를 집어 먹던 형민이 흘끗 눈길을 들어 쳐다보면

태오의 손등에 태양을 상징하는 남미 스타일의 문신이 보인다

형민

무슨 말이고? 시체를 옮겼다는 거.

근처 테이블의 중년 남녀가 할끔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만
태오는 무심한 척 계속 칼국수를 먹으며

태오

아~ 한 육 칠 년 전에 산에다가 시켜면 비닐 봉다리 하나를 묻은 적이 있거던예.
그런데.

태오가 면발을 삼키다 말이 끊기자

형민

그런데? 거기 사람 같드나?

태오

예. 묵작하고 물경 거리가 던질라고 딱 잡는데 이게 (각질로 허연 자신의
발꿈치를 잡으며) 이계가 딱 잡히는 거 같더라고예.

씩 서로를 쳐다보는 형민과 정봉.
형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형민

몸이 접히까?

태오

아니예. 토막예.

형민

뭐?

옆 테이블 손님들이 그만 젓가락질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눈에 힘이 들어가는 형민.

형민

혼자 옮겼나?

태오

예.

형민

무거웠을텐데.

태오

무거웠지예.

형민

와 니가 버렸는데?

태오

그때 노름 빛이 좀 있어가 돈 준다캐서.

형민

시킨 놈은 누구데?

문득 젓가락질을 멈추는 태오

자꾸 끼는 서리가 귀찮은 지 안경을 벗자 어딘가 섬뜩함이 드러나는 눈빛

그 눈빛을 예의주시하는 형민

태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 믿고 일 준 사람을 우째 팔아 묵습니까?

형민

10년 지냈는데? 묻은 장소는 어데고?

안경을 닦던 태오

태오

(대음)

골프 친다면서요?

씩 눈길을 돌려 정봉을 쳐다보는 형민

화들짝 놀란 정봉이 고개를 젓는다.

다시 태오를 쳐다보는 형민

형민

그래, 왜?

태오

혹시 돈 좀 있습니까?

형민

얼마나?

태오

(다시 안경을 끼며)

그야, 행님이 알아서.

후루룩 칼국수를 마저 먹고 젓가락을 놓는 형민

지갑에서 꺼낸 십만원 수표와 명함을 함께 주며

형민

마, 니 몸에서 젓국 냄새 난다. 목욕 좀 하고 말하고 싶을 때 연락해라.

회면 가득 수표와 형민의 명함이 보이고

순간 안색이 싹 굳는 태오

돈을 받지 않은 채 딴 곳을 쳐다보며

태오

아~ 이걸로 말이 나옵니까?

형민

(기가 차서)

그라든? 얼마를 주야 니 주디까.

그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배달을 하던 남자가 갑자기 확 태오를 덮친다.
태오 순간 헬멧의 남자를 떨구어 내면
우당탕 상이 넘어지고 사타구니에 칼국수 국물을 뒤집어 쓰는 정봉.
뒤에서 나타난 덩치 사내가 태클을 하 듯 태오를 옆 방으로 밀고 들어 간다.
방에 있던 아줌마가 놀라 소리치며 달아나고
방안 냉장고에 부딪히는 덩치와 태오
득달같이 달려 든 다른 사내들이 태오를 덮치고 들어 메친다.
쾅! 작업대 상 위에 넘어지는 태오와 사내들.
발악을 하며 태오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집어 들고 손을 뻗는데
순간 태오의 손에 철컹 채워지는 수갑.
한형사(30대 후반)가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우며

한형사

강태오. 허수진의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알았나?

태오

(고통스러운 듯)

아아. 좇을 까네. 씨바.

옆에 서서 허탈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형민
다른 형사가 태오를 끌고 나가자 한형사가 바닥에서 수표와 명함을 집어 툭툭 털어 주며

한형사

마수대 계십니까?

형민

예. (턱짓하며) 뭐요?

한형사

작년부터 쫓아 댕겼습니다.

3. EXT. 주차장-DAY

주차장 처마 밑으로 낙수 물이 똑똑 떨어지고
주차장에 세워진 최신형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오는 형민
그 뒤를 따르며 휴지로 사타구니를 닦는 정봉.
삐빅~ 형민의 차가 노란색 불빛을 깜빡이자
눈이 동그래진 정봉.

정봉

형남~ 또 차 비겼습니까?

열 받은 형민이 돌아서 확 손을 차켜 들며

형민

콧~ 마.

정봉

(본능적인 상단 막기)

아~ 진짜~ 내도 몰랐다니깐요.

형민이 녀석의 정강이를 차 버리자 그냥 힘 없이 풀썩 쓰러지는 정봉.

아아~ 뼈 뿌아지른 책임 질랑요? 우리는 역수로 뼈가 약한데.

형민이 다시 발로 녀석의 옆구리를 차려 하며

형민

니가 내 골프 친다고 씨부렸지?

미리 “아~ 악~”거리며 엄살을 떠는 정봉.
형민이 그만 포기하고 그랜저에 오르며

하이고~ 뽕쟁이 말을 믿은 내가 빙신이지.

4. EXT. 골프장 전경-DAY

푸른 잔디로 탁 트인 골프장의 모습 위로 자막 <3개월 후>

아버지(V.O)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영?

아버지(70대), 형 형수와 함께 카트를 타고 가는 형민.
앞 자리에 앉아 잔뜩 쉰 목소리로 투덜대는 아버지.

아버지

그래 귀찮고 불편하기만 하든 와 애초부터 남자랑 여자랑 다 따로 땡글어
갔겠냐고?

뒷좌석에서 갑갑한 표정으로 형을 쳐다보는 형민.
형이 그만 아버지를 말리려는 듯

형민형

예 예. 인자 선도 보고 할거립니다.

뒷좌석에서 갑갑한 표정으로 형을 쳐다보는 형민.
하지만 계속 잔소리를 해대는 아버지.

아버지

조상들이 다 살아 보니까 안 하는 거 보다는 하는 기 좋고 그래가 다 새끼도

놓아서 대도 있고 양? 그래 사는 기지.

이때 띠리리락~ 전화벨이 울려 퍼지자
잘됐다는 듯 얼른 전화를 받는 형민.

형민

예. 여보세요.

태오(VO/F)

형님 집니다.

형민

누고?

태오(VO/F)

몇 달 전에 칼국수 집에서 잡히 갈 때 봤다 아입니까? 강태오라고.

형민

(황당해서)

뭐고? 니 어디서 전화 하노?

태오(VO/F)

요게 부산 구차습니다.

형민 가족들 눈치를 보다가 카트에서 내린다.
형민형이 쳐다 보면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며

형민

참 내. 왜?

태오(VO/F)

전화해라 했다 아입니까?

형민

벌써 잡혀갔다 아이가? 땀 흘렸는데.

태오(VO/F)

형님이 접견 좀 와 주아소 수진이 말고 다른 기 더 있어가.

형민

(전화를 끊으려 하며)

관심 없다.

태오(VO/F)

일곱 명

형민

뭐?

태오(VO/F)

총 일곱 명입니다. 제가 직인 사람들에게.

형민

무슨 소리고?

태오(VO/F)

암매장도 하고 또 광안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릴라고
일부러 전화 드린 겁니다.

미간에 주름 진 형민 뒤를 돌아 보면

저 멀리 카트에서 내린 가족들이 필드로 걸어 간다.

형민

진짜가?

태오(VO/F)

여!

형민

언제?

태오(VO/F)

인자 좀 관심이 생깁니까?

형민

니 담당 형사한테 말 하지 와?

태오(VO/F)

에이~ 그 새끼들은 하는 짓들이 하도 추접아서. 싹 다 접견 기피 신청을 해
놔습니다.

5. INT. 동부 경찰서 형사과 DAY

형민과 마주앉은 한형사. 어이 없다는 듯 웃으며

한형사

외예? 지가 사람을 토막 내가 광안대교에서 버렸다 카든고?

형민의 눈에 보이는 사건 파일 속 사진들.

사체 발견 당시의 사진들과 현장검증을 하는 태오의 무심한 얼굴 등.

한형사가 뻘한 수작이라는 듯이

일주일 동안 입을 딱 닫고 있다가. 피해자 혈흔이 발견 되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고마 딱 잔치를 해 뿌더라고. 지가 직인 놈이 세 놈이 더 있대냐.

INSERT-<회상> 숲 속에서 사체를 찾아 헤매는 형사들과 과학수사 대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한형사(VO)

금정산. 황령산. 광안대교 앞바다. 에이~ 시파. 좇뽕이만 치고

피곤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 한형사.

한형사

사체는 코빼기도 못 찾고 검찰에 송치할 시간은 시간대로 다 까 묵고
그 새끼 때때 우리만 뽕뽕이 돌았다 아입니까. 참~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형민의 머리 속을 맴도는 이미지.

INSERT- 뿌옇게 성에 낀 안경을 벗자 광기가 드러나는 태오 눈의 클로즈업.

6. INT. 구치소 접견실-DAY

여기저기서 접견을 하고 있어 소란스러운 접견실 안.
그 중 책상 하나를 차지한 채 우두커니 앉아있는 형민.
잠시 후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머리를 짧게 민 태오가 모습을 드러낸다.
형민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정수기 앞으로 가는 태오.
형민 태오가 하는 꼴을 지켜 보는데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다 씩 웃으며 형민을 내려다 보는 태오.

CUT TO

약간 짝 다리를 짚는 걸음으로 다가와 형민과 마주 앉으며

태오

(대뜸)

요새도 증거를 조작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형민

무슨 증거?

태오

형사들이 특진에 눈이 멀어가 제가 수진이를 직일 때 썼던 증거들을 싹 다
조작했다 이 말입니다

형민

니가 안 죽었던 말인가?

그 말에 착 하고 코를 삼키는 태오, 나뭇 억울하던 표정을 지으며

태오

내가 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제출한 옷하고 테이프는 전부
가짜입니다.

잠시 태오의 얼굴을 노려보던 형민이 싹 일어서며

형민

느그 변호사랑 이야기 해라.

그러자 갑자기 펜으로 종이 위에 뭔가를 쓱쓱 그리기 시작하는 태오

서서 잠시 태오가 하는 꼴을 지켜보는 형민

쓱 다 그린 악도를 형민에게 내밀며

태오

이게 함 가 보아소. 거기 수진이 옷하고 팔 다리를 묶었던 청 테이프가 다
있을 겁니다.

형민

내가 와?

태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머지 여섯 명~! 거기 궁금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주름진 눈으로 태오를 내려다보는 형민
태오가 마치 무슨 내기라도 걸려는 듯

사람이 일곱 토막 납니까 안 납니까?

형민

뭐?

그러자 또 다른 종이 위에 뭔가를 쓱쓱 그리는 태오
형민이 종이를 내려다보면
대충 그린 사람의 몸애다 선을 짝 짝 긋는 태오

태오

이래 이래 안 잘라 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머리. 팔 두 개. 몸통. 다리 두 개. 여섯 토막뿐이다.
형민이 눈으로 세어보며

형민

여섯 개네.

그러자 무릎과 배꼽 사이를 스윽 긋는 태오
자신의 뒤쪽 꼬리뼈를 가리키며

태오

요게 감자는. 칼 손잡이로 탁탁 치면 쓱 빠집니다.

미간을 찌푸린 채 태오를 노려보던 형민
못이기는 척 도로 자리에 앉으며

형민

그런데? 허수진이는 와 토막을 안 냈노?

그 말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태오

태오

처음에 팔을 자르고 있는데 가시나 눈꺼리가 나를 뺨히 쳐다 보는 거라요.
와~ 고마 비는 억수로 내리자. 가시나 그기 하도 반항이 심해가 나도 많이
지쳤자. (고개를 절레절레) 갑자기 만사가 다 귀찮아 지면서. 내가 와 그런
빙신 같은 짓을 했는지 참 내.

형민

죽인 거를 후회 한단 말인가?

태오

아니아~ 고마 하던 대로 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목젓이 크게 움직이는 형민

정확한 테크닉! 예? 완벽한 마무리! 예? 그거를 어기는 바람에 내가 20 년을
법자로 살게 생겼다 아입니까? 씨발거.

잠시 종이의 일곱 토막 그림을 바라보던 형민

형민

좋다. 그러믄 나머지는 누구누구고?

태오

(엄하게)

인자, 궁금하죠?

형민

그래, 궁금하다.

태오가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툭툭 털며

태오

그라운 뭐 나도 좀 혜택이 있어야지.

7. EXT. 성자곡 수원자-DAY

와글와글 알록달록한 등산복 차림으로 산행을 나온 중년의 남녀들.
잡상인들로 붐비는 공원 입구 천막에선 119 대원이 인형에 올라타 열심히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고
그 앞에서 '함 보고 가입시다~ 야 고마 가자~'로 실랑이를 벌이는 아줌마 아저씨들.
그들 사이로 멀리 차에서 내리는 형민의 모습.
주머니에서 꺼낸 약도를 확인하고 쓱 맞은편 산을 올려다본다.

8. EXT. 등산로 옆 숲-DAY

호호호호~ 중년 여자들의 교태가 섞인 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등산로의 부감 샷
카메라가 봄 다운하면 등산로 옆 숲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형민
'설마 이런데.'하는 표정으로 약도와 뒤쪽 등산로를 번갈아 쳐다보는 형민
하지만 약도에 그려진 조그만 개울과 형민의 눈 앞에 실제로 보이는 개울.
긴가 민가 하는 표정으로 개울을 향해 걸어가는 형민
풀썩 개울을 건너 약도에 표시된 보폭만큼 걸어가 본다.
숲 속 중간에 우뚝 멈추는 형민
굵은 소나무 중간에 낡은 인공 새집이 보인다.
주변에서 긴 나무 가지 하나를 찾아 새집을 툭툭 건드리는 형민
열린 틈으로 여자의 속옷 자락 같은 것이 보이자
아? 하고 인상을 쓰는 형민
새집 문을 더 열어 젖히자 드러나는 여자의 속옷과 빛 바랜 청 테이프 묶음.
후우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 보는 형민

9. INT. 고등법원 재판장-DAY

세 명의 판사들이 앉아있는 법정

방청석에서 한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뚜벅뚜벅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형민

검사석에 앉은 30 대의 젊은 **여자 검사**

불편한 얼굴로 형민을 보며 옆에 앉은 사람과 슬쩍 귓속말을 한다.

CUT TO

소등이 된 재판정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보이는 형민이 찾은 청 테이프와 속옷의 사진

변호인이 하나를 가리키며

변호인

김형민 형사님 이 물건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힐끗 한형사와 눈이 마주친 형민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형민

*예. 제가 피고인 강태오의 진술을 토대로 찾아 낸 피해자의 옷가지하고
사체를 유기할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테이프입니다.*

여자 검사의 미간이 찌푸러지고 동시에 웅성거리는 방청석.

변호인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저희 쪽이 제출한 국과수 감정서에 따르면 이
옷과 테이프에서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번에는 실물 화상기 위에 다른 사진을 올린다.

스크린 위에 좀 전 사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속옷과 청 테이프 사진이 뜬다.

*반면 이 쪽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옷가지와 청 테이프로
한 눈에 봐도 분명히 급조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씨발~이라고 노끼리는 한형사

CUT TO

환하게 밝아진 재판정

애써 담담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형민

*존경하는 재판장님!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 사법경찰관들이 오히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피고인석의 태오와 눈이 마주치는 형민

태오, 형민에게 엄지 손가락을 차켜세운다. 그 위로

피고인 강태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고

10. INT. 법원 복도-DAY

몹시 화가 난 허수진의 유족인 듯한 이준마가 한 형사 무리에게 따지고 있다.

이준마

도대체 왜 감형이 된 겁니까? 뭐가 잘못 된 거요? 예! 말 좀 해 보소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한형사와 동부서 형사들.

잠시 후 재판정에서 형민이 나오자

한형사와 동부서 형사들이 우르르 다가와

한형사

당신, 형사 맞나?

열 받은 형사 하나가 확 형민에게 달려들며

동부형사1

돈이라도 받아 쳐 묵었소? 어?

다급히 이를 저지하는 다른 형사들.

입을 꼭 다문 채 그냥 복도를 걸어나가는 형민

멀리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여자 검사와 힐끗 눈이 마주친다.

11. INT. 교도소 수사 접견실 DAY

주절거리는 태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화면 가득 잡히는 글씨의 클로즈업

1. 어릴 때 50대 남성 살해 후 숲 속 예유기

태오

한 몇 년 오징어 배 좀 타다가 니중에는 원앙어선까지 탔다 아입니까.

마치 주관식 시험의 답을 쓰듯 열심히 써 내려가는 태오

2. 서원택이 할 때 연산동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성 살해 후 여기 저기 나뒹 어버림

에코도르에서 배 수리 한다고 한달 쯤 있을 때 클럽 가수. 라냐

(쓱 손등 문신을 보이며)

라냐 오빠가 해 준 거요. 아~ 가수나 그거. 잘 있는 가 모르겠네.

팔짱을 낀 채 써지는 글자와 태오의 표정을 살피는 형민

3. 사랑 하우스에서 알던 풍지 박사장 광안대교 바다에 버림

이번에는 태오가 볼펜 뒤 끝으로 종이를 톡톡 치며 생각을 하더니

이거는 어디서 태웠더라. 아. 못다.

다시 써지는 글씨.

4 택시할때고대앞 20대후반의 여자살해후 여기저기 누워버림

이번에는 태오가 다른 화상을 하듯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아~ 가수나 이거는 사는 기 불쌍해가. 씨바.

5 사상 택시할때 여자손님밤/시경살해후 토막내가 산속 무덤 인근 앞매장

다시 사건을 생각하듯 허공을 보다가 힐끗 형만을 쳐다보는 태오

원래 사람을 직이고 나쁜 정신이 확 더 많아지죠.

6 30대 남자.시비끝에흉기사용하여 살해후 계단에 밀어 떨어.

여기까지 쓴 스스로가 좀 대견스러운 표정의 태오

씩 눈길을 들어 형만을 쳐다보며

수진이 거도 쓰까요?

형민

(팔짱을 풀며)

그래 뭐 기왕 쓰는 거.

다시 써 내려가는 태오

태오

에이~ 럭키 세븐에 딱 잡혔네.

7 충무동,수진 말다툼 속에 무시하여 엉겁결에 살해유기

태오가 숙제를 마친 듯 볼펜을 탁 놓자

쓱 종이를 집어 드는 형민

눈으로 한번 읽어내려 가더니

형민

수진이랑은 와 말다툼 했노?

태오

아~ 가스나가 오일 체인지 한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

형민

오일 체인지?

태오

있다 아이요? 여자들 달거리 하는 거. 여행가자 해놓고 오만 핑계를 다
대고

형민이 좀 입맛이 쓴 표정으로 다시 종이를 보더니

형민

처음 50대 남자. 이거는 니가 몇 살 때고?

태오

어릴 때요.

형민

몇 살?

태오

안 하요.

형민

뭐를?

태오

더 이상 안 갈까 준다고

형민

(인상을 쓰며)

와 이라노 갑자기?

태오

머를 와 이라노? 나머지는 형님이 풀어야지.

형민

장난치나?

태오

그렇다 아이요~ 서로 주고 받는 기 있어야지.

형민

큰 거 받았다 아이가? 5 년이나 즐었는데.

태오

에이~ 그거 같고.

형민

그러면 뭐? 임마.

태오

색깔 변하는 안경 있지요?

형민

안경?

태오

실내에서는 고마 유린데 밖에 나가가 햇빛 보문 썬그라스처럼 변하는 거.

도수 없는 거로 하나만 갖다 주아소

형민

마하구로?

태오가 그만 자리에서 툭툭 일어서며

태오

하아~ 참 사람을 일곱이나 직있는데도 안에서 별로 안 묵어 준다 아이요.

영차금도 좀 두둑이 넣어 주시고 레깅스랑 뽀스도 좀 사다 주아소 플라 거로

기가 찬 형민이 팍 인상을 쓰며

형민

았아라.

그냥 몸을 돌려 접견실을 나가는 태오가 땀을 피우듯

태오

아~ 대가리 터질라 한다.

형민

았으라~까!

순간 팍 돌아서는 태오

태오

야 이 씨발 거야~

놀라서 움찔하는 형민

태오가 마치 죽일 듯이 노려보며

사람 죽이는 기 쏘냐? 어?

형민

뭐?

태오

(고함을 치며)

사람 죽이는 기 쏘냐고~? 그때 생각하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 계속 물어 보노, 영?

하지만 꿈쩍 않고 차가운 눈으로 태오를 노려보는 형민

형민

미쳤냐. 이 새끼가.

한 동안 핏대 선 눈으로 형민을 노려보던 태오

문득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쥐어 뜯으며

태오

아~ 아. 내가 이라든 안 되는데. 미안하요. 형님

잠시 생각하던 형민이 그만 종이를 접어 놓더니

의자를 밀치고 일어서 그만 접견실을 나가버린다.

혼자 남은 태오가 천정을 보며 후~ 하고 한숨을 쉬며

아아~ 나기미야. 나기미야.

12. EXT. 광안대교-NIGHT

교각 너머로 어른어른 스쳐 지나는 가로등 불빛들.

핸들을 잡은 채 묵묵히 그랜저를 모는 형민

잠시 후 그랜저가 광안리 앞바다를 가로 지른 대교 위로 들어선다.

CUT TO

대교의 상판 갓길에 차를 멈추는 형민

차에서 내려 이리저리 주변을 살펴보다가 문득 아래를 보면 사커먼 바닷물이 넘실거린다.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흘러 나오는 목소리

스피커(VOF)

3570. 차량~ 거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형민이 씩 눈길을 돌려 보면

스피커 옆에 설치된 CCTV 위로 어떤 남자의 목소리.

관리인(VO)

그 전에는 감시용이었습니다. 감시용.

13. INT. 대교 시설 관리소-NIGHT

형민에게 믹스 커피 한 잔을 내 놓는 관리인

관리인

진짜 벼라 별 놈이 다 있거든요. 자살 할라는 놈. 쓰레기 버리러 오는 놈.
술 취해가 오줌 싸고 똥 싸는 놈.

대교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형민

형민

옛날에는 녹화가 안 됐다고요?

관리인

예. 녹화 장치 해 놓은 기 불과 얼마 전입니다.

형민

좀 황당하다 그지요?

관리인

관에서 하는 일이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 예산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좀 의아 합니다.

14. INT.EXT. 수사 몽타주 DAY/NIGHT

연산동 로터리의 유홍가 전경

길가에 세워진 택시들 사이로 택시 기사 하나가 호객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

마산 창원 만원 한 명만 더 타든 출발합니다. 자. 마산 창원 만원!

그 옆으로 모습을 드러낸 형민

취객들이 비틀거리고 싸우고 난장판인 골목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CUT TO

전봇대에 너털거리며 벽에 붙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

그 속 20대 여자의 사진에서 앵글이 이동하면

여관 입간판을 붙잡고 뒤편을 훑으며 구토를 하는 여자.

그 모습을 낄낄대며 지켜 보는 술 취한 사내들.

물끄러미 그 모습을 쳐다보는 형민

CUT TO

경찰청 인트라넷으로 실종 발생보고 자료들을 확인하는 형민

마우스의 스크롤을 올리는 형민의 손가락.

다양한 남녀 실종자들의 사진과 발생 보고가 화면에 스쳐 지나간다.

CUT TO

뿅 하고 입에 문 사인펜의 뚜껑을 여는 형민
부산 시내 지도 위에 5 군데 택시 회사의 차고지를 표시한다.

형민

전부 강서 쪽이네.

15. INT. 마수대 사무실 DAY

책상에서 소지품을 챙겨 백 팩 안에 담는 형민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마수대장(40 대)
손에 든 태오의 진술서를 팔랑팔랑 흔들며

마수대장

꼴랑 이거 하나 믿고 형사파로 진출을 간단 말이가?

형민

재밌다 아입니까? 희한 한 놈인데.

마수대장

야 임마 우리도 비빠 죽겠는데.

주변을 살피던 마수대장.

마수대장

(나지막이)

형민야! 우리 동기 중에 진급 문 한 거는 너 밖에 없다. 아무리 못 나가도 말뚝거리
하나는 달고 있는데

형민이 마수대장 손에서 진술서를 낚아채며

형민

쌈 다 암수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백 팩을 둘러메고 나가는 형민

그 뒤를 따라가며

마수대장

뭐?

형민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도 없어가 경찰에서도 아무 수사를 안 하는 사건
한 해에 몇이나 되는 지 아냐?

마수대장

몇이나 되는데?

형민

최소 이백 건은 넘는다.

마수대장

(놀리며)

그래 많다고?

형민

맨날 사고나 치고 골치 아픈 인간들. 고마 대출해가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생각하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도 신고를 안 하지

마수대장

미친 놈 말을 우째 믿는 다 말이고?

형민

(확신에 찬 눈빛으로)

사람 잘라 본 놈 맞다. 안 그라든 그래 구체적으로 진술 문 해

16. INT.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형사과장 집무실-DAY

형사들과 잡범들로 바글대는 형사과
트렌치 코트에 백 팩을 맨 형민이 들어서자
할끔할끔 곱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는 다른 형사들
그 가운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형민을 쳐다보는 젊은 형사 한 사람(조형사).

조형사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꾸도 안하고 형민이 형사과장 집무실로 향하자
이를 보고 있던 맞은 편 형사 하나가

형사

마수대 지방청 마수대 아이가

조형사

(픽 웃으며)

아~하. 완전 놀러왔네. 놀러

CUT TO

접힌 뱃살에 안슬린 주사 바늘을 꼽아 넣는 형사과장(50 대 초반).

형사과장

이미 다 판결이 난 사건을 또 들추든 누가 좋아한단 말이고? 또 언론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잘 했니 못 했니 그런 소리나 해 쌀 깐데. 결국 지 손가락으로
지 눈까리나 찌르는 기지.

형사과장이 주사 바늘을 뽑아 쓰레기 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는 형민

형민

안슬린 주사를 평생 맞아야 됩니까?

형사과장이 벽에 붙은 범인 검거실적을 턱짓하며

형사과장

보라. 이미 잡힌 놈 죄 하나 더 밝히는 거 보다 새로 한 놈 더 잡아 넣는 거
훨씬 고과 점수도 높다. 니가 범인 많이 잡아가 내 혈당 좀 낮차 보라.

형민

참 내 잔급하든 당뇨병도 낮는 겁네.

팍~ 째려보는 형사과장.

형사과장

니 목에 개 줄 찰라고?

형민

예?

형사과장

니 글마가 각본 쓰는 거 모르겠어?

형민

무슨 각본요?

형사과장

내 니처럼 유령 같은 사건 쫓아 땀기다가 패기망신한 형사들 몇 명 봤다.
(사이) 니 혹시 송경수라고 아냐?

형민

누구요? 송경수? 야금정서에 있던 분.

형사과장

그래 임마. 글마가 몇 년 전에 범죄꾼 한 놈한테 잘못 엮이가 집 팔고 차 팔아가며
수사 하다가 결국 마누라랑도 이혼하고 지금은 자갈치에서 주차관리 한다 아이가.
혹시 글마가 돈 부탁 같은 거 안 하드나?

형사교장의 말에 잠시 대꾸를 잃은 형민

찐찐한 얼굴로 벽에 붙은 검거실적 그래프를 쳐다보는 모습 위로

형민(VO)

강태오 처음에 우째 알았노?

17. EXT. 사설 노름방 인근 도로-DAY

운전중인 형민의 옆자리에 앉아 주절대는 정봉.

정봉

김옥철이라고 남포동 설렁탕 아들 내미! 노름해가 즈그 가게 다 팔아 묵고
와 모릅니까? 글마가 태오를 소개 시켜 주드라고예.

형민

글마도 약쟁이가?

정봉

(당연하다는 듯)

노름 뽕 서로 다 친구 아잉교? (쓱 표정을 바꿔) 야~ 행님 저한테 명예
형사증 같은 거 하나 안 줘니까? 계속 이래 옆에서 형님을 보필하는데.

대답하기도 귀찮은 것 같은 형민의 표정

18. EXT. 사설 노름방 앞-DAY

침침한 골목 입구에 멈추는 차에서 덜컥 문을 열고 내리는 형민

조수석에서 빼꼼 창문을 내리는 정봉.

정봉

절대로 저한테 들었다 하든 안 됩니다.

씩 녹슨 철조망 담장 넘어 건물을 올려다보는 형민

19. INT. 사설 노름방 계단-DAY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오는 형민

문 앞에 앉아 있던 당치가 썩 일어서며

당치

웬니까?

형민

느그 꿈지 중에 박사장 이라고 있냐?

형민의 포스에 조금 기가 눌린 당치.

형민을 아래 위로 썩 훑어 보며

당치

뭐 하시는 분입니까?

형민

형사 하시는 분이디.

20. INT. 사설 노름방/사무실-DAY

담배 연기가 가득한 노름방 소굴

당치와 함께 좀비처럼 노름에 빠진 인간들 사이를 지나가는 형민

CUT TO

머리가 벗겨진 30 대 후반의 아내가 실없이 웃으며

박사장

그 새끼가 나를 직있다 카든교?

형민

혹시 다른 박사장은 없었소? 옛날에.

박사장

하이고~ 글마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9 할은 다 뺄 겁니다. 하하하.

형민

서로 알기는 아는 가베?

박사장

한 십 년 전쯤인가? 그 새끼가 한번은 일본도를 들고 찾아 왔다가.

내한테 완전 개 작살이 났습니다. 그 또라이 말 믿지 마이소.

형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 전에 다른 박사장은 없었냐고?

박사장

예 최소한 저는 모릅니다.

형민이 일어서서 명함 한 장을 꺼내주며

형민

혹시라도 듣는 소리 있거든 연락 좀 주고 (쓱 턱짓을 하며)노름만 해라.

뜨끔한 표정으로 스윽 팔에 나 있는 주사 맞은 자리를 가리는 박사장.

21. EXT. 산동네 언덕길-DAY

녹슨 철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형민
인기척을 확인하느라 썩 안을 들여다보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영감(VO)

그 집 아무도 없소~ 일 나가고

돌아보면 커다란 볼록렌즈 돋보기 안경을 낀 영감이 다가온다.

22. EXT. 영도 중학교 정문 DAY

묵묵히 운전을 하며 중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형민의 얼굴 위로

영감(VO)

*아가 총 셋이었지. 그런데 고마 즈그 엄마가 농약 먹고 나서 달뽀가 있다가
제일 큰 누이까지 목을 매 뿐기라.*

23. INT. 영도 중학교 교무실 DAY

선생들이 몇 없는 교무실에서 태오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뒤적여 보는 형민.
그 위로 이어지는 영감의 목소리.

영감(VO)

*애비리카는 놔온 맨날 술에 절어가 부수고 깨고 때리고. 말도 문 해즈그
누나고 태오고 얼굴이 상한 날이 없었거든*

아주 당차 보이는 중학생 시절 태오의 사진 아래 적혀 있는 가족 관계.

<부 강주석 모 이영숙 큰 누나 강산자 작은 누나 강숙자>

그 위로 들려오는 영감의 목소리.

영감(VO)

그놈 그기. 어릴 때는 참 공부도 잘 했고 그림도 잘 그렸다.

24. EXT. 자갈치 새벽시장-DAY

그물 수선 천막들 앞에서 길 커피를 마시고 있는 형민

불편한 얼굴로 형민에게 말을 뱉는 강숙자.

강숙자

10년 전에 집이 재개발 되다 보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훔치 가다 노름판에
싹 다 털어 묵고. 하이고~인간 아닙니다. 그거

형민

(미심쩍은 눈길)

아버지는 그 보상금 때문에 사망 처리를 한 거 맞습니까?

강숙자

(괜히 말했다 싶은)

모릅니다.

형민

예?

강숙자

옛날에 배 타러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불편한 강숙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 형민.

근처에서 끼룩끼룩~ 떨어진 생선 조각을 향해 달려드는 갈매기 떼들.

25. INT. 교도소 수사 접견실-DAY

테가 두꺼운 패션 안경을 끼고 앉아 있는 형민

형민

공지 박사장은 눈꺼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던데. 니가 일본도 들고 가가
직일라 했던

태오

야. 맞습니까? (머리를 긁적이며) 직이고 싶은 놈이랑 직인 놈이랑 내 머리
속에서 영키가 좀 헛갈렸는 거네. 이해 하아소.

교도관이 잠시 딴 곳을 보는 사이

필라 로고가 박힌 옷가지를 책상 밑으로 전해주는 형민

형민

이래가 믿을 수 있겠나?

이를 받아 자신의 사타구니에 쑤셔 넣는 태오

태오

믿으니까 또 왔겠지요. 영차금은?

형민

확인해 보라.

태오

얼마?

형민

두 개

형민이 쓱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자

이를 집어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다 쓱 안경을 써 보는 태오

형민이 쓱 턱짓을 하며

인사 좀 묵어 주겠네. 돈도 있고 그라스도 끼고.

태오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향하자

팔짱을 끼고 보는 형민

태오, 기분이 좋은 듯 안경을 벗어 햇빛이 드는 쪽에 대 본다

안경이 햇빛에 반응하며 까만 색으로 변하자

어린이이 같은 표정으로 좋아하며 돌아 와 앉는 태오

형민

안경 값은 해야지?

다시 서서히 안경의 색깔이 변하며 번뜩이는 태오의 눈빛이 드러나고

태오

2006 년인가. 겨울에 사상 택시 할 때. 대저동 가자는 술 취한 가시나를

태웠거든에. 연산동에서.

형민

2008 년이다. 사상 택시는.

태오

아. 맞습니까?

형민

자꾸 흔들리네. 믿음아.

그러자 태오가 앞에 놓인 종이를 가져가 뭔가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런 태오를 유심히 보는 형민

자세히 보면 어딘가의 약도다.

형민

이유가 뭐고?

약도를 그리다가 쓱 한번 형만을 쳐다보는 태오

태오

와 직있냐고요?

형민

아니와 자백을 하냐고? 감방에는 더 살기 싫다면서?

다시 다른 종이에 약도를 쓱쓱 그리며

태오

그라이까. 감방에 살기 싫으니까.

형민

고마 사형 받아서 죽구로?

태오

마.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쇼.

형민

이번에도 틀리믄 내하고는 끝이다.

다 그린 3 장의 약도에 123 번호를 매기고 쓱 웃더니

형민 앞으로 내밀며

태오

가 보이쇼. 생곡지구 가달 마을. 무덤 근처에 분명히 토막 낸 거를 묻었으니까.

약도를 접어 넣으며 일어서는 형민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칫하고 뒤를 돌아보더니

형민

임마. 이미 죽은 사람을 굳이 토막까지 낼 필요가 있나?

후~ 한숨을 쉬 태오가 뭘 모른다는 듯이

태오

나뉘가 버리야 잘 못 찾자~축 쳐진 몸뚱이에 팔 다리 대가리까지 덜렁덜렁 거리
보소 울매나 옮기기 힘든데 피까지 다 빼도 무거벼요.

경멸하는 눈빛으로 태오를 쳐다보던 형민
그만 쿵 문을 닫고 나가버린다.

26. EXTINT. 생곡기달 마을 입구/차 안-DAY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형민의 차
약도에 표시된 생곡지구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타나고
삼거리에 멈춰 서는 차
이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자 핸들을 꺾으며 샛길로 좌회전을 한다.

27. EXT. 숲 속 무덤 인근 도로-DAY

숲 속 능선 길 위로 올라오는 형민의 차
운전을 하던 형민 창을 스윽 내려 본다
약도와 유사한 지형의 산 아래로 무덤 가가 한 눈에 들어 온다.

28. EXT. 숲 속 무덤 근처-DAY

약도를 든 채 숲 속을 걷고 있는 형민
잠시 후 눈 앞에 계단이 나타난다
약도 속에 그려진 계단을 확인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는 형민
하나 둘씩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
잠시 후 대리석과 해태상으로 치장된 어느 재력가 집안의 무덤이 나타나고

다시 그려진 약도를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

형민

기억력 좋네. 새끼.

이때 멀리서 쿵르르~ 천둥 소리가 낮게 깔리며 들려오고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무덤 일대를 살펴보는 형민

혼자서 주변을 다 파 보기엔 너무 광범위해 보이자 갑갑한 표정이 되는 형민

담배 한대를 꺼내 무는 형민의 모습 위로 들리는 목소리.

택시기사(VO)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라.

29. EXT. 사상 택시 휴게실-DAY

40 대 초반의 택시기사 한 명과 마주 선 형민

택시기사

차를 넘겨 주기로 한 놈이 오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했지요.

형민

그러니까 그가. 2008 년 9 월 추석 명절 때라 이거죠?

택시기사

예. 추석 대목이라고 억수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글마가 뺑꾸를 내는 통에
고마 공췄다 아입니까.

형민

확실합니까?

택시기사

예 여자랑 드라이브 갔다 왔더라고. 미안해 죽을라 해싸면서
세차도 싹 해오고.

뭔가 느낌이 온 듯 고개를 끄덕이는 형민

형민

주로 연산동 쪽에서 영업 했습니까?

택시기사

예 그런데 글마는 스페아 기사라서 다른 기사들하고도 잘 묻 어울리고 지 혼자서
그 위에 온천장 쪽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형민

온천장요?

30. EXT. 사상운수 차고지/차 안-DAY

형민이 옆 좌석에 쌓아 놓은 실종자 현황 자료를 뒤지기 시작한다.

형민

(자료를 넘겨보며)

2008 년 9 월 온천장

한참을 뒤적이는 형민

마침내 <온천장 단란주점 도우미 실종 발생보고서>(2008 년 10 월 접수)를 찾아낸다.

눈빛이 반짝이며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본다.

오지희 대저동.

31. EXT. 대저동 주택가 골목-DAY

허름한 주택가 골목에 모습을 드러내는 형민
골목 끝에 <할매 밀면>이라고 써진 작은 식당이 보인다.

32. INT. 식당 안-DAY

드르륵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등이 굽은 노파가

지희할매

어서 오아쇼

형민

오지희씨 할머니님 맞지요?

노파의 주름진 눈이 더욱 움푹해 지며

지희할매

누요?

33. INT. 집 뒷마루/방 안-DAY

조그만 마당이 있는 집
형민이 노파와 함께 좁은 식당 주방을 통해 나온다.
낮은 뒷마루와 연결된 방문을 열어 주고는 탈썩 마루에 주저앉는 노파.
형민이 문을 열고 좁은 방 안을 들여다보자 옷가지들과 가방, 싸구려 화장품들이 즐비하고
벽에 걸려 있는 오지희의 중학교 시절 빛 바랜 수영 대회 사진들과 메달들.
노파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지희할매

중학교 때는 수영도 잘 해가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했구마는. 무신 운동이
돈이 그래 마이 드능교

방 안에서 이것 저것을 살펴보던 형민
앨범에서 실종 당시쯤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을 집어 든다.

형민

요 사진 한 장만 가지 가도 됩니까?

노파가 가져 가라는 듯 손짓을 하며

지희할매

경찰들 말이. 우리 지희가 술집서 일을 했다카데여. 내는 고마 옷 가게에서
일한다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주름이 깊게 패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짖어내는 노파.

형사님요 우리 지희가 어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만이라도 좀 갈카
주소

형민

예. 열심히 찾아 보께요.

사진을 들여다 보는 형민의 얼굴 위로 울려 퍼지는 여자의 고함 소리.

오지희(VO)

택시~!!

34. EXT. 온천장-NIGHT<회상>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유흥가의 전경 위로 지막 <2008 년 부산 온천장>

제법 덩치가 큰 글래머의 30 대 초반의 오지희

태오 택시의 룸미러 속으로 황급히 올라 탄다.

오지희

아저씨, 대저동.

그때, 뒤따라 온 술 취한 사내가 뒷문을 벌컥 열며

사내

약 올리나 지금? 내리라! 삼십 아니 오십 주께!!

계속 룸미러를 통해 보며 길길대는 태오

오지희

노라! 나는 2차 안 한다.

사내

(마구잡이로 끌어내리며)

가시나야~ 그라운 처음부터 말을 하던 약!

딱 하고 오지희가 사내 정강이를 차버리자 뒤로 벌러덩 나뒹구는 사내
다시 서둘러 택시 문을 닫은 오지희

오지희

아저씨~ 갑시다!

태오

(재미있다는 듯)

아. 예.

부웅~ 태오의 택시가 출발하고

일어나 택시를 따라오며 '야야~ 씨발년아~!!' 욕을 해대는 사내

35. INT.EXT. 달리는 택시/안-NIGHT<화상>

밤길 도로를 질주하는 태오의 택시.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든 채 긴 속 눈썹을 때 내는 오지희

오지희

아직 안 자고 머하노? 할매. 그래

룸미러로 힐끔힐끔 여자의 드러난 가슴을 쳐다보는 태오

시선을 의식한 듯 슬쩍 옷 매무새를 만지는 오지희

명절 대목이라서 옷 사러 오는 손님 얼마나 많은데 (사이) 됐다~ 끊어라 할매.

오지희가 전화를 끊자 태오가 룸 미러 속에서 씨익 이빨을 드러내며

태오

옷 가게 하는 줄 아는 갑네사는 기 참 힘들다. 그지요?

기분이 상한 오지희 받아 치는 말투로

오지희

고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운전이나 하소.

순간 얼굴이 싹 굳는 태오

기어를 파박 바꾸고 엑셀을 밟는다.

점점 속도가 올라가고 툅툅 잠기는 차 문의 잠금 장치들.

이리저리 차들 사이를 추월해 가며 거칠게 운전하는 태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오지희가 갑자기 욕욕~ 거리더니

푸아악~ 입에서 나온 토사가 시트 위로 쏟아진다.

그 모습을 보고 확 짜증이 난 태오

태오

카~ 씨발

눈물이 글썽한 채 룸 미러를 통해 뻗히 태오를 쳐다보던 여자.

우웩! 하고 또 다시 토를 해 버린다.
혀를 끝끝 차며 한심하게 여자를 쳐다보던 태오

하이!고~ 가지 가지 한다!

입가를 훔치는 외중에도 태오를 노려보는 여자.

오지!희!

아~ 진짜 대사 좇같이 치네!

순간 살짝 눈빛이 도는 태오
갑자기 핸들을 틀어 방향을 바꿔 버린다.
비아아아앙~ 더욱 속도를 내며 달려가는 택시.

36. EXT. 낙동강 갈대 숲 흙 길-NIGHT<회상>

덜컹덜컹 흙 길에 바퀴가 튀고
어느새 인적이 드문 갈대 숲 길로 접어드는 택시.

오지!희!

야 차 문 세우냐. 내가 여자라고 우스운 가베. 야 차 세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어둠 속으로 택시를 몰고 가는 태오
파파파팍-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추는 차.

태오

내리!라!

오지!희!

뭐?

태오

내리라고 영업 끝났다.

어이 없는 표정의 오지희

오지희

이런다고 내가 빌 주 아냐?

지갑에서 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확 뿌려 버린다.

오지희

아나 택시비. 평생 택시나 몰아라.

창 문을 닫고 내려 버리는 오지희

룸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오지희를 보는 살기로 번뜩이는 태오의 눈빛

오지희

야. 씨발 새끼. 재수 없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하려는 오지희

그 모습 뒤로 스윽 방향을 돌려 다가오는 택시의 헤드라이트 불빛

무심코 뒤를 돌아 보는 오지희 얼굴 위로 쏟아 지는 헤드라이트 불빛

기어를 2 단으로 넣는 태오의 이미 완전히 맛이 간 눈빛

있는 함꼰 악셀을 밟자 부아아앙~ 오지희를 향해 돌진하는 택시

펑 소리와 함께 화면에서 사라져 버리는 오지희

차를 멈추고 내리는 태오

으~하고 신음을 뱉으면서도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 버둥거리는 오지희

잔뜩 충혈된 눈으로 여자를 뺨히 내려보며

태오

자기야. 니 이래 살아가 머 할래?

37. EXT. 셀프 세차장-NIGHT<회상>

아무도 없는 셀프 세차장에 들어서는 태오의 택시
지갑 안에 오지희가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보이고
현찰과 신분증 카드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는 태오
고압 세척기로 바퀴에 묻은 피와 택시 외부를 꼼꼼하게 세차하는 몽타주 샷들

38. EXTINT. 국밥 집/앞-NIGHT<회상>

다른 택시들이 주차되어 있는 가게 앞에 차를 세우는 태오
입구에 있는 세차 아줌마에게 만 원짜리 세 개를 주며

태오

어떤 또라이가 오버াই트를 했다. 좀 매매 닦아 주소

CUT TO

비눗물을 발라 차 안 시트를 열심히 닦아내는 아줌마.
트렁크 안 비닐에 쌓인 여자의 사체가 흔들거린다.
그 위로 에에에엥~ 소리가 들려오고.

39. EXT. 생곡 가달 마을 입구-DAY

사이렌을 울리며 경광등을 켜 채 달리는 경찰차들과 과학수사대 차량들.
차 뒷좌석에 묵묵히 앉아있는 형민과 형사과장.

40. EXT. 숲 속 무덤 인근 도로-DAY

무덤 인근 도로 가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는 차량들
형민과 형사과장에 이어 다른 형사들과 과학 수사대원들 그리고 전경들이 쏟아져 내린다.
분주히 사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형민

다른 형사들이 우르르 형민의 뒤를 따른다.

41. EXT. 숲 속 무덤 가DAY

비장한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형민과 형사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현장의 일부가 모두 뒤집혀 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다.

형민

어? 뭐고?

현장의 인부 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형민.

뭐 하요? 지금.

인부1

보면 모르요? 이장하지.

형민

이장?

인부1

시에서 이 달 말까지 유해를 옮기라 해가. 산을 싹 다 밀고 택지개발
한답니다.

형민

돌겠네. (큰 소리로) 자. 자. 요게 좀 보입시다~

스님의 목탁소리와 함께 불공을 올리던 유족들과 인부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자

품 속에서 수색 영장을 꺼내 흔들어 보이는 형민.

잠시 중단해 주이소. 이거는 수색 영장이고 오래 안 걸리니까. 수색 끝날
때까지만 협조를 좀 부탁 드립니다.

CUT TO

일제히 흩어져 삽질을 하기 시작하는 의경들
의경들 사이를 돌아 다니며 땅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형민
이때 멀리서 뻘악~ 뻘악~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

CUT TO

깊게 파인 구덩이 주변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몰려든 형민을 비롯한 형사들
과학수사 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내는데 검붉은 천이 드러난다.
순간 웅성거리는 형사들
과수대원이 검붉은 천을 잡아 끌어 올리면 흙 속에 파묻힌 관이 드러난다.

과수대원
(손을 털고 일어서며)

야.이거 관 인데.

형민
(황당한 표정으로)

뭐.관?

그때 성난 유족 하나가 형사들을 헤집고 나오며

유족
아 여기 다 무덤이라고 남의 조상 관을 파가지고 시파.

실망감에 형민을 찌려 보는 형사고장.

DISSOLVE FROM

DISSOLVE TO

유족들과 인부들이 보이지 않고 숲 속은 더 이상 팔 곳도 없어 보인다.

삽질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작이 느리고 맥이 빠져 보이는 가운데
당이 떨어져 잔뜩 지치고 짜증이 난 얼굴로 서 있던 형사과장.

형사과장

야 야. 인자 그만 하자. 다 철수해라.

삽으로 땅을 파다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형민

형민

와요?

초콜릿 하나를 까먹으며

형사과장

와는 무슨 와고? 남의 관까지 다 뒤집어 봤으면 됐지. 뭘 더 파 본다 말이고

이러다 천벌 받는 거 아인가 모르겠네. 참~나.

CUT TO

과학수사대 전경들이 썰물처럼 현장을 빠져 나가고
혼자 남은 채 숲 속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형민
얼굴과 몸이 온통 땀으로 젖어있다.
그런 그를 향해 터벅터벅 다가오는 어느 발걸음.
지난번 호기심 어린 눈길로 형민을 쳐다보던 젊은 형사다.
생수 병을 내미는 조형사.
쳐다보는 형민

CUT TO

조형사의 손에 들려있는 오지희의 사진.
나란히 앉아 별걱별걱 생수를 마시는 형민과 조형사.

형민

중학교 때 수영 선수였단다. 입이 좀 걸어서 그렇지 마음은 착해가 할매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잘 챙기 주고

잠시 아무런 말 없이 앉아 있는 두 사람
그러다 가만히 눈을 감는 형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온다.
형민의 눈가에 진한 주름이 생긴 채

어데 있노 나.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형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어

조형사

와 그란답니까?

형민

뭘 와 그래?

조형사

(다시 사진을 주며)

와 자백하냐고요? 지가 사람을 더 직있다고.

사진을 받은 형민이 후~ 하고 한 숨을 내 뱉고는

형민

그러게 말이야

조형사

어차피 정상은 아이지요?

형민

무슨 정상?

조형사

예 사람을 그래 토막까지 내가 직있다 카는 거 보든. 사이코 패스 그런 거
아입니까?

형민

감정 불능

조형사

예?

형민

임마를 감정한 프로 파일러 말이 이 새끼는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 단다.
그래서 결론이 감정 불능.

조형사

진짱니까?

형민

뭐 신경 쓸 거 있냐. 현장 수사는 좇도 모르고 맨날 주디로만 씨부리는데.
그런데 우짜든지 보통 놈은 아니다.

조형사

누구요? 강태오요?

형민

원래 살인을 하면 정신이 없어가 장소 시간 이런 잘 모르거든 근데 일마는 장소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말아야. 분명히 와 본데가 맞거든.

조형사

뽕 카 아입니까?

형민

그럴 리 없다. 또 그랬다가는 다시는 나를 못 보는데.

형민의 시야에 맞은 편 숲으로 향하는 작은 도로가 보인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확 커지는 형민.

아.

조형사

오예?

뭔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형민.
손에 든 약도의 2 번을 1 번 오른쪽 옆에 붙여 본다.
그러자 세 장의 약도가 또 다른 형태로 퍼즐이 맞추어 지고

INSERT- 접견실에서 쓱 한번 형민을 쳐다보는 태오.
차례로 번호가 매겨지는 세 장의 약도 클로즈업

황급히 언덕 쪽으로 뛰어가는 형민.
얼굴에 물음표가 생긴 채 형민을 쫓아가는 조형사.

42. EXT. 3 번 약도의 숲 속 무덤가-DAY TO NIGHT

숲 속 숨겨진 나무 터널 길을 달려 오는 형민과 조형사.
나무 터널 끝자락 숲 속에 또 다른 무덤 하나가 있다.
쓱 고개를 돌려 조형사를 보는 형민.

형민

순서를 바꿨네.

CUT TO

어둠 속 공사장 간이 스탠드 조명이 켜 있고
웅~웅~ 거리며 움직이는 포크레인.

덜컥 소리와 함께 땅을 파 올리는 포크레인
순간 형민의 눈에 뭔가가 포착 된다.
형민이 자신도 모르게 포크레인을 향해

형민

아! 정지! 스톱!

쓱 목을 빼고 쳐다보는 포크레인 기사가 푸르륵~ 시동을 끄자
순간 정적이 감도는 숲 속.
바지 주머니에서 흰 장갑을 꺼내 끼고 다가가는 형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무릎을 굽혀 조심스레 흙 더미를 걷어 내는 형민.
포크레인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오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조형사.
형민의 손이 흙 더미를 더 걷어 내자 꼬리뼈로 보이는 백골의 일부가 드러난다.
더욱 그 주변을 파내는 형민.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의 양치뼈.

INSERT- 종이에 그린 사람 몸에 무릎과 배꼽 사이를 스윽 긋는 태오

형민이 다가 온 조형사를 향해

맞제? 사람 뼈

조형사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형민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개 새끼

43. INT. 검사실-DAY

아주 차가운 얼굴로 수사 보고서를 읽고 있는 여자 검사.
재판정에서 형민에게 물을 먹은 바로 그 여검사다.

그 앞에 묵묵히 앉아있는 형민

여검사가 밍살스런 눈빛으로 형민을 쳐다보며

여검사

이 사건을 굳이 저한테 가져 온 이유가 뭘니까?

형민

(뻔뻔하게)

예. 거기 저. 아직 허수진 사건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많으실 거 같아서요.

여검사

(기가 차서)

형사님한테는 좋구요?

형민

아니예.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해가. 이래 좋은 사건을 가져 온 겁니다.

어이가 없단 표정의 여검사에게 밍지 않게 씩 웃어 보이는 형민

여검사가 잠시 갈등을 하는 가 싶더니 책상용 다이어리의 스케줄을 본다.

진행 중인 사건들의 일정과 시누이 생일 등 개인 일정들로 빼곡하다.

다소 초조한 눈빛으로 기다리는 형민을 향해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며 미간을 찌푸리는 여검사.

여검사

국과수에는 보내셨어요?

형민

예. 보냈습니다.

44. EXT. 부산 교도소 정문-DAY

철커덩~ 교도소 철문이 열리며 빠져 나오는 법무부 호송 차량.

45. EXT. INT. 부산 시내 도로/차 안-DAY

부우우웅~ 호송 차량이 부산 시내 길을 지나가고
차 안에서 색이 검게 변한 안경을 낀 채 창 밖을 쳐다보는 태오
거리를 지나는 젊은 여자들의 모습에 시선이 따르며

태오

아~따. 여자 사람들 간만에네.

46. INT. 검찰청 진술 녹화실-DAY

텅 빈 진술 녹화실에 앉아 있는 태오
공간이 낯선 듯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린다.
방 안 곳곳 세 군데에 설치된 카메라와 테이블 바닥에 부착된 마이크
모니터링 룸 창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검사과 조형사.
잠시 후 녹화실 문이 열리고 형민이 들어서자

태오

어? 형님. 이게 우짤 일입니까?

형민

어. 검사님이 같이 좀 보자캐서.

안경을 벗고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수갑 찬 손으로 이마를 탁 치는 태오

태오

혹시 보물 찾았능교?

마치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좋아하며

와~ 그라운 인자 형님 어깨에 말뚝가리 하나 딱 다는 가베?

스피커 소리를 들으며 유리벽 안을 주시하는 여검사.

형민이 차분하게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쳐 놓으며

형민

인자부터 나는 생곡 암매장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된 거다.

태오

예?

형민이 파일에서 꺼낸 유골 일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형민

나머지는 어데 있노?

태오

무슨 나머지?

형민

나머지는 사체는 어데다 버렸냐고?

태오

내야 모르지.

형민

뭐?

태오

(완전 생가늌)

내가 그거를 우째 아냐고?

형민

니가 직이가 묻었다고 말 했다 아이가?

태오

내가 언제요?

형민

이 새끼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지켜보는 여검사.

점점 약이 오르기 시작하는 형민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들어. 2008년 9월 12일 나는 사상운수 스페어
기사로 영업을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느그 짝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차도 안 넘겨 줬고.

후우~ 하고 허공에다 한 숨을 쉬는 태오

그런 태오 앞에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내미는 형민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오지희

온천장에서 태운 이 여자. 기억 하지?

태오

아니아~ 누군데요? 이 여자가?

형민

나는 내한테 연산동에서 태운 여자를 토막 낸 다음 생곡 자구에 묻었다고
했지? 그런데 사실은 온천장이었다. 니가 그리 준 약도의 반대편에서 유골
일부를 찾은 거고.

형민이 지난번 태오가 쓴 자술서를 짚어 보이며

자, 니가 쓴 자술서 5번! 이래도 계속 뽕 깔래?

그러자 갑자기 팍 인상을 쓰며 고함을 치는 태오

태오

아~ 씨바. 그거야 형님이 쓰자 캐서 쓴 거 아이요?

형민

뭐?

태오

그래 써 주든 영치금 2백 준다메!

갑자기 어안이 병병해진 형민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유리벽 쪽을 쳐다본다.

벽 너머에서 고개를 돌려 조형사를 쳐다보는 여검사.

조형사 역시 당황스럽고 난처한 표정

더욱 기세 등등 목소리를 높이는 태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냥 돈 받고 물건을 옮겨 줬을 뿐입니다. 그때
내 잡히던 날 형님랑 뽕쟁이 새끼랑 같이 칼국수 먹으면서 다 말 해 줬다
아이요? 그때도 형님이 돈 줬고!!

형민

(얼굴이 확 붉어지며)

뭐라 하노? 이 새끼가.

태오

형님~ 한국말 문 알아 들습니까? 내는 10년 전에 누가 내한테 부탁을 해가
생곡에다 묻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여자를 직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딱딱 끊는 어투로) 모 른 다 고 요~

그때 수사관 하나가 검사에게 국과수에서 보낸 서류를 건넨다.

서류를 펴서 살펴 보는 여검사.

글씨

사망 추정 년도는 8~10 년 전 신원 확인은 미상.

태오와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형민

형민

개 새끼가

비릿한 미소를 짓는 태오가 마치 힌트를 주듯 입 모양만 벅긋거리며

태오

기소 문 해요

형민

(어이가 없어)

뭐?

태오

(다시 벅긋 벅긋)

시간이 지나가

순간 부르르 떨리는 형민의 주먹

바로 한방 날릴 기세지만 극도로 흥분을 자제하며

형민

새끼야 배꼽 아래부터 무릎까지. 거기 바로 니가 살인범이라는 날인이고
인장이다.

방글방글 웃기만 하며 형민을 쳐다보는 태오

이때 문이 덜컥 열리며

조형사

나오시립니다.

47. INT. 검사실-DAY

팔짱을 낀 채 앉아있는 여검사
형민 곤란한 입장을 애써 감추며

형민

오지희 할머니 유전자랑 한번 대조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검사

사체 유기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얼굴에 그늘이 지는 형민

게다가 끝까지 자신은 운반만 했다고 주장하고 설사 오지희가 맞다고 해도
사실상 가소가 어렵잖아요?

냥패가 서리는 형민

여검사가 씩 자세를 고쳐 앉으며

영차금 준 게 사실입니까?

형민

(잠시 고민을 하다)

예.

여검사

그 전에도 돈 준 적 있구요?

형민

아. 그때는 고마 목욕이나 하라고 이 사건하고는 별개의.

여자 검사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들고 있던 볼펜으로 뭐라고 쓱쓱 쓰기 시작하고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려다가 그만 고개를 숙이는 형민

죄송합니다.

48. EXT. 자갈치 시장 주차장-DAY

구르릉 탕탕~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차들이 철제 골조로 된 주차장 건물을 오르내리고
주차 박스 안에서 조끼 점퍼 차림으로 주차비를 받는 얼굴이 검게 탄 50 대의 남자(송경수).
잠시 후 어깨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는 형민

형민

송 선배님!

송경수

누구요?

49. EXT. 분식 리아카-DAY

오뎅 떡볶이 순대 등을 파는 리아커 포차.
송경수가 얼마 남지 않은 어묵 오뎅을 간장에 찍어 먹으며

송경수

글마 똑똑하냐?

형민

예. 중학교 때는 공부도 잘 했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악도 그리기
장난까지 치는 거 보든 기억력도 역수로 좋은 거 같고요.

송경수

나는? 돈 많고?

형민

(잠시 주저하다가)

형님이 아버지 사업을 물리 받아가 제 자분이 좀 있습니다.

송경수

딱 건적 나오네. 글마가 바라는기 뭐겠노?

형민

제 돈요?

송경수

물론 돈도 돈이지만 자네가 계속 수사를 열심히 해가 자가 무죄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지.

형민

예?

송경수가 다른 대나무 꼬치를 집으며

송경수

그런 놈들은 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논리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표정의 형민

지는 원래 A 사건으로 잡혀 갔는데. 니한테 B 사건 C 사건을 자백하니까
나는 그 말만 믿고 뭐 나게 쫓아 댕기면서 수사를 했지.

쪼쪼쪼 떡 꼬치를 먹으며 말을 잇는 송경수.

그런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B, C 사건이 둘 다 무죄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니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순간 그 새끼가 변호사를 통해가 우기는 거지.
사실은 원래 있었던 A 사건도 다 무죄요. 이렇게.

얼굴에 살짝 경련이 일어나는 형민

결국 경찰과 검찰이 글마의 유죄를 완벽하게 입증 문하든 현재의 사건까지
무죄 판결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계산하는 거라고

형민

에이~ 설마. 판사가 그래 믿겠습니까?

작은 바가지로 오텍 국물을 떠 마시는 송경수

송경수

응. 그래 믿더라.

눈이 동그라져 쳐다보는 형민

바가지를 든 송경수가 뻘하단 표정으로

처음 사건은 경찰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자백이었던 기 인정 된다면서.

순간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번지는 형민

INSERT- <회상>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던 태오의 모습.

태오

그라니까. 감방에 살기 싫으니까.

CUT TO

착~ 하고 나머지 국물을 바닥에 뿌려버리는 선배 형사.

송경수

내 말고도 셋이나 더 옷 벗었다. 고마 손 떼라.

찻찻해진 형민의 얼굴 위로 띠리리릭~ 울리는 핸드폰 소리.

이때, 다른 중년 남자가 포장마차 쪽으로 뛰어오며

주차장

송씨! 혹시 어제 벤츠 박았능교?

송경수

아니, 무슨 벤츠?

주차장

뭐가?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는데. 주차장에 내 아이은 당신 밖에 더 있나?

빨리 함 와 보쇼

얼굴에 물음표가 생긴 송경수가 천 원짜리 하나를 주며 계산을 하고

그제야 전화를 받는 형민

형민

어.

조형사(V.O.F)

오지희 할매랑은 유전자가 다르답니다.

김이 팍 새는 형민

허둥지둥 뛰어가는 송경수를 따라가는 주차장 남자.

주차장

하이고~ 세 달치 월급 다 끌어 박게 생겼다.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더욱 심난한 표정이 되는 형민

50. INT. 형사과 사무실 NIGHT

화면 가득 화이트 보드에 옮겨 적힌 자술서 내용.

1. 어릴 때 50대 남성 살해후 숲 속에유기
2. 서원택시 할때 연산동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성 살해후 여기 저기 나뒹 어버림
3. 사상 하우스에서 일던 쫄지 박사장 광인대고 바다에 버림
4. 택시 할때 고대 앞 20대 후반의 여자 살해후 여기 저기 나뒹 어버림
5. 사상 택시 여자 손님 밤/시경 살해후 토막내가 산속 무덤 인근 암매장
6. 30대 남자 시비 끝에 총기 사용 하여 살해후 계단에 밀어 떨어.
7. 충무동, 수진 말다툼 속에 무시하여 엉겁결에 살해유기

조형사와 함께 보드를 보고 있던 형민이 3 번 5 번 7 번 글씨들 위로 빨간 줄을 그으며

형민

노름방 박사장. 오지희. 맨 마지막 수진아. 일단 이 세 개는 접고

팔짱을 낀 채 보고 있는 조형사.

이번에는 형민이 매직으로 1 번을 톡톡 치며

어릴 때. 이가. 몇 살 때라는 소린지 말을 안 해.

조형사

5 번 오지희가 10 년 전인데. 순서대로 보든 1 번도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 아이겠습니까?

형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빨간 매직으로 1 번을 짝 긋는다.

조형사가 나뒹 머리를 굴러보며

2 번. 저거는 어떻습니까? 서원택시. 연산동 나이트 클럽

눈가에 잔뜩 주름을 만들어 써진 내용들을 훑어보는 형민

형민

2006 년도에 서원택시에 일했던 거 말고는 십 년이 넘어가 통신기록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돌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형민이 2 번 4 번 5 번을 가리키며

이상하게 이 세 건은 공통점이 있어. 일단 셋 다 택시 할 때 희생자가 여자.
태운 장소가 연산동 근처야.

조형사

5 번은 온천장이고.

형민이 쓱 조형사를 돌아보며

형민

만약 이 두 개도 온천장이면? 같이 근무했던 사람 말로는 글마는 왕따라서
주로 지 혼자 온천장에서 영업을 했다고 했거던. 아는 놈들한테 쪽을 팔기
싫었겠지.

형민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 세 개가. 같은 사건일 가능성은 없겠나?

조형사

(미간에 진한 주름)

이유는요?

형민이 최대한 심리를 읽어내려는 듯

형민

한 사건을 일부러 부풀리고 찢어가 최대한 내 수사 범위를 넓혀 놓겠다는
의도. 그러고 또

조형사

또?

형민

자기 스스로를 과시할 목적?

조형사

(공감하듯)

씨게 보아구로

손으로 자신의 턱을 쓰다듬는 조형사.

그리고 어차피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실종신고 변사발생이나 수사 보고도
없어

형민

(말을 이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지 말만 따라 가야 되지. 오지희 사건 맹쿠로

조형사

(감을 잡은 듯)

갖고 놀기 딱 좋겠네. 씨바

형민이 갑자기 지우개를 들더니 쓱쓱 글자들을 지워 나가기 시작하며

형민

1 번은 공소시효 때때 아웃. 2, 4, 5 번은 한 사건으로 간주. 3 번은 직인 기
아이고 직이고 싶었던 놈. 그리고 7 번은 이미 판결이 났고.

결국 마지막에 달랑 남은 한 줄

6.30대 남자. 시비 끝에 흉기 사용 하여 살해 후 계단에 밀어 떨어.

매직 끝으로 6 번 문장의 밑줄을 긋던 형민

문득 '계단'이라는 단어에 여러 번 동그라미를 치더니

씩 조형사를 쳐다보며

이가. 무슨 계단 이겠노?

조형사

건물? 지하?

형민

그라든? 누가 발견은 했을 거 아이가.

조형사

당연히 신고 했을 거고 수사 기록도 있겠네!

51. INT. 교도소 수사 접견실-DAY

패션 안경을 낀 채 형민과 마주 앉은 태오

태오

분명히 '미안하게 됐소' 했거던 그런데 임마가 '이 새끼! 뭐라 캐셨노'

하면서 욕을 하는 기라. 비번 날 기분 좋아가 술 한잔 묵고.

캠코더 속에 비친 태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조형사.

얼굴이 벌개진 태오가 당시의 상황을 액션까지 곁들여 재연하며

그래가 딱 임마 먹살을 잡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주 차가 자빠뜨리 놓고

착 칼을 꺼내가 바로 목에 한 방 주뿌고. 그 다음에 등 허리. 개 싸가지

없는 새끼를. 고마 덕치는데로 씨바~

그러다 멈칫 카메라를 보는 태오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목소리 톤을 낮추더니

뭐. 대충 그래 된 겁니다. (조형사를 향해 씩 웃으며) 잘 찍고 있소?

슬쩍 형민과 눈이 마주치는 조형사.
형민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이

형민

그래가? 그 다음은?

태오

얼마 넣었다고?

형민

삼백

태오

에이~ 한 오백 넣지. 그래야 쪼매 더 구체적으로 가는데.

형민

어데서 그렸는데?

태오가 땀을 파우뎃 안경을 벗어 호~ 닦으며

태오

이번에는 잘 해가 꼭 특진 한번 하소.

형민

그래 알았다. 장소는?

대답대신 씩 웃고만 있는 태오

태오

(대뜸)

완전 범주가 없다고요?

형민

..뭐?

태오

15년 전 영도 골목 살인사건 2003년 사하구 과정동 '처음 주점' 살인사건
2004년 사상구 삼락동 살인사건 2007년 우암동 살인사건.. 전부 다 내가
저지른 거요.

우두커니 서서 태오를 내려다보는 형민

태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하며

이래 내 입으로 다 갈카주야 되는데.. 우째서 완전 범죄가 없단 말이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는 형민

형민을 올려다보는 태오가 더욱 얼굴이 달아 오르며

경찰들은 다 빙신 새끼들이야? 영? 결국 내가 이런 악마가 된 이유는 영?
느그처럼 무능한 경찰들이 그때 나를 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영?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냐고요~?

핏대 선 눈으로 형민을 노려보는 태오의 얼굴 위로

조형사(VO)

아~ 글마 진짜 또라이데요.

52. EXT. 도로/달리는 차 안-DAY

운전을 하는 형민과 조수석의 조형사

조형사

그래 막 정신 없이 씨부리 썼는 거 보든.

형민

그만큼 자신 있단 소리자.

조형사

무슨 자신?

형민

자가 이길 자신. 우리가 증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백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거를 잘 알거던.

조형사가 인상을 쓴 채 고민을 하더니

조형사

인자 우짤 겁니까?

이때 신호등에 걸려 멈추는 차.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
묵묵히 차의 전방 유리를 쳐다보는 형민.

형민

어떻게든. 장소 날짜 시간 유죄를 증명할 만한 단서를 거꾸로 찾아내야 된다.

조형사

(문득 고개를 돌려)

야! 참. 글마가 마지막에 써부린 다른 사건들.

형민

속지 마라.

조형사

예?

형민

수작질이다. 우리를 헛갈리게 만들라는.

전방 유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는 형민

30대 남자. 이거는 분명히 지가 한 짓 맞다.

확신에 찬 형민의 눈빛

막상 입을 열고 나니까. 지도 불안해 지가 최대한 연막을 치는 거지. 이
개새끼가.

53. INT.EXT. 수사 몽타주-DAY/NIGHT

형사과 책상에 앉아 지방청 미제사건 리스트를 보고 있는 형민

그 옆에 선 조형사.

조형사

2001년부터 작년까지 미제 사건 중에 피해자가 남자고 노상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총 8 건입니다.

형민 리스트에 빨간 펜으로 해당 사건에 사각사각 표시를 하며

형민

지 입으로 비번 날이라고 했으니까 택시 영업할 때라고 보고 2006년 8년은 해당
사항 없고 2007년 동부서 2건 2010년 해운대 1건 2012년 중부서 1건이네

조형사

(난감한 표정으로)

미제 사건이라서 관할서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CUT TO

쿵- 하고 문이 열리고 대머리 형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오는 형민

대머리

양이 많아가 애 마이 목을 깬데. 담당 형사들도 다 발령이 나가 연락도 잘
안될 거로

보안카드로 착- 굿고 짜악~ 문을 열어 주며

함 찾아 보소

방대하게 쌓여있는 자료들을 보고 그만 기가 질리는 형민

하지만 작심한 듯 안으로 향하고

먼지를 털어가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하는 형민

CUT TO

복도에서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의 다른 형사

형사2

아니~ 도대체 언제 사건을 말합니까?

조형사

아니 노상 살인사건 이요 피해자는 남자고

형사2

아~ 참. 대답하시네. 우리가 다루는 사건이 일년에 몇 개요?

CUT TO

차에서 어딘가와 핸드폰 통화를 하는 조형사

조형사

아니, 아니. 김형민 그 인간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을 기 좀 있어가. (살짝 윙크 하며) 예, 맞습니다. 같은 형사들도 다 팔아
묵고 완전 우리 편 아이지요.

한숨을 쉬며 핸들을 돌리는 형민

54. INT. 중부 경찰서 기록 보관실 DAY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어두 킴킴한 지하 보관실
덜컥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형민과 조형사.
조형사 벽면 버튼을 누르자 파파팍 불이 들어오고
사람 하나 지나 갈 틈도 없이 자료가 가득 쌓여 있다.

조형사

아~ 이계도 장난 아이네.

그런데 갑자기 악~ 하고 고함을 지르는 조형사.
놀란 형민이 보면 획 발 밑으로 지나가는 쥐 한 마리.

하~ 청소 좀 하자.

슬며시 인상을 쓰고는 계속 캐비닛 속 서류를 뒤지는 형민
서류들을 넘기다 그만 종잇장 모서리에 손이 삭 베인다.

형민

아야

손가락 마디 안쪽에서 스물스물 피가 베어 나오자
입에 대고 쪽쪽 빼는 형민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리면 캐비닛들 사이 벽면 선반에 올려져 있는 서류 박스 하나가 보인다.

CUT TO

형민이 두껍게 깔린 먼지를 걷어내자

<2012 년 부평동 노상 살인사건>이란 라벨이 붙은 서류 박스

조형사가 다가 오며

조형사

뭔니까?

뚜껑을 열어 함께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두 사람.

서류 하나를 펼쳐 보는 형민이 고개를 갸웃 하더니

형민

2012 년 11 월 27 일.

미간에 주름을 만든 채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읽는 형민

중구 부평동 노상에서 발생 피해자 황철규. 사망 당시 37 세. 고시 준비생

따로 부검 서류를 뒤적이던 조형사의 입에서

조형사

왼쪽 목 주변에 길이 5.5cm, 깊이 10cm 크기의 자절상. 왼쪽 옆구리에 길이 2cm 깊이 5cm 의 자상.

본능적으로 눈길이 부딪히는 두 사람.

이거네.

CUT TO

위잉~ 착착~ 소리가 나며 복사기에서 뿔어져 나오는 자료들.

복사기의 불빛이 마치 영상기에서 뿔어지는 것처럼 프레임이 하나씩 겹쳐지기 시작하며.

55. EXT. 부평동 골목 NIGHT <화상>

새벽 녘의 한적한 유흥가 뒷골목.

술에 취한 **황칠규**가 전화를 하며 비틀거리며 걸어 온다.

황칠규

이 나이에 누가 받아 주노? (사이) 장사? 밑천도 없는데 무슨 장사고? 엄마

내 이번에는 꼭 합격한다~ 두고 보라.

막 골목 코너를 돌다 태오와 어깨가 툭 부딪히는 황칠규.

황칠규의 담배가 무스탕에 묻자 표정이 싸해지는 태오

술김에 화풀이라도 하듯 태오를 끌어 보며

머고? 씨파.

태오 뺨히 황칠규를 노려 보면

황칠규가 귀찮다는 듯이 휘적휘적 손짓을 하며

황칠규

가소 고마 가소 (다시 걸어가며) 아~ 니기미.

무시하며 다시 걸어 가는 황칠규.

엄마~ 그러믄 공부하는 놈은 친구 만나가 술도 한 잔 못 묵나? 내가 무슨

고빼리도 아이고 고마 끊어라!

골목 사이로 사라지는 황칠규를 노려보는 태오

55-1 EXT. 골목 상가 화장실 앞 DAY

황칠규가 화장실 변기에서 일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

상가 입구에 태오가 우뚝 서 있다
고개를 뼈뚱하게 하고 서 있는 태오 기가 차다는 듯

씨파~아~?

순간 남자의 목에 푹 박히는 칼날
쿵 하는 외마디와 함께 손으로 태오의 손목을 잡는 남자
하지만 푹하는 소리와 함께 정강이가 차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다.
이어 옆구리와 등에 연달아 꽃히는 칼날
푹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눈동자가 커지는 황칠규.

황칠규

아. 아.

쓰러진 남자의 목에서 순식간에 쿵쿵 찢어지는 피가 터져 나오고
숨이 차서 씩씩대지만 아주 냉정하고 살벌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태오
지나는 행인도 주변에 설치된 CCTV 도 보이질 않는다.
목에서 피를 뚫고 죽어가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단 눈길로 태오를 올려다보는 남자.
가소로운 듯 남자를 내려보는 태오, 아까 남자의 통화 말투를 흉내 내듯

태오

엄마~ 인자 내 죽는다. 엄마~ 잘 있어라.

남자가 쿵쿵 쿵쿵 입에서 피를 토하더니 몸을 부르르 떨며 금새 파르르 눈동자가 뒤집어진다.

56. INT. 건물 지하/골목 NIGHT <회상 교차>

철썩- 데굴르르- 지하 계단의 끝으로 굴러 떨어지는 남자의 사체
계단 위에 서서 잠시 남자를 내려다 보더니 다시 돌아 나가는 태오

CUT TO

씩씩 주섬주섬 골목에 버려진 종이 박스를 주워 모으는 태오
그 모습 위로 조형사의 목소리

조형사(VO)

계단에서 타다 남은 종이 박스가 발견

57. INT. 상가 건물 지하DAY

계단 아래에서 시체처럼 드러누운 채 사건 조서를 읽는 조형사

조형사

..범행 현장의 증거 인멸을 위해 방화를 시도 했던 것으로 추정

계단에 서서 씩 위의 천정을 올려다보는 형민

형민

그런데 실패했지

58. INT. 건물 지하NIGHT<회상>

천정에 노출된 PVC 수도관이 검붉게 타 들어가는 가운데
계단 중간에 서서 검게 그을린 점퍼의 팔꿈치 부분을 털고 있는 태오

태오

아~ 씨바

사체를 덮은 종이 박스에서 치솟는 불길 넘어 태오
이때 갑자기 팍 하고 녹아버린 수도관에서 물줄기가 쏟아지자
아 하고 뒤로 무르는 태오
사체를 태우던 종이 박스들이 피삭 피삭 연기를 내며 꺼지기 시작한다.
잠시 당황한 태오 몸을 돌려 현장을 빠져 나가는 운동화

형민(VO)

나가다가 찍힌 거네.

59. INT. 건물 지하 DAY

현장 감식용 사진에 남아 있는 선명한 운동화 자국.

형민

신발 사이즈는 280 으로 추정

사진에 찍힌 손잡이 없는 칼날을 보는 형민

범행 현장에서 손잡이가 없는 칼날이 발견.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

INSERT- <회상> 어두운 아스팔트 바닥을 질질 끌러가는 남자.

깊숙한 옆구리 상처에서 빠져 나온 칼날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진다.

CUT TO

상가 입구로 나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불현듯 눈을 감는 형민

마치 기도라도 하듯 나지막이 노까린다.

형민

단서 좀 주소. 그래야 내가 원한을 풀어 줄 거 아이요.

가우뚱하고 그 모습을 쳐다보는 조형사.

조형사

두 겹니다. 단서는.

짜증이 나지만 계속 눈을 감고 있는 형민
조형사가 이랑곳 않고 서류를 뒤지며

1 번은 글마가 신었던 운동화. 2 번은 날이 빠진 칼 손잡이.

반짝 눈을 뜬 형민

형민

*11 월 27 일 04 시에서 05 시 사이. 일마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행적
알리바이가 필요하다.*

조형사

그걸 지 입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새끼가?

조형사를 뵈히 보는 형민

60. INT. 교도소 수사 접견실-DAY

접견실에 들어서는 태오
여유만한 얼굴로 교도관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인사를 하더니
보온병을 손에 든 태오, 특유의 걸음걸이로 유리 부스로 다가 오는데
형민이 아니라 조형사가 우뚝 앉아 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태오

태오

어?! 형님은?

쓱 팔짱을 끼며 눈을 깔아 쳐다보는 조형사.

조형사

골프 치러 갔다 임마. 누가 니 형뻘이고? 같이 놀아 주니까 눈에 비는 기 없냐?

순간 눈꼬리가 올라가는 태오

태오

돌았나?

조형사:

(대답)

나는 태생적으로 거지드만. 어릴 때부터. 니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

태오 조형사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돌아서 나가는데

조형사

접견 오는 인간도 하나 없고 돈 한 푼 줄 놔도 없으니까 결국 김형사한테
구걸한다 아이가. 거지 맹쿠로.

확 돌아선 태오가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조형사를 노려보며

태오

아~ 참 말 좇같이 하네

하공에서 두 사람의 눈길이 부딪히고

조형사

(딱 웃으며)

새끼야. 니 주제에 무슨 일곱이고? 테크닉이 어떻고 마무리가 어떻고 기껏
힘없는 여자 하나를 직이 놓고 그거를 부풀리고 뺑기 치고 참 씨바.

점점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태오

그에 아랑곳 않고 계속 바웃음을 이어가는 조형사:

연세 살인마? 사이코 패스? 니 그런 놈 아이야. 고마 불쌍한 딸 아들 코 묻은
돈이나 빨아 묵은 개 잡범이지.

조형사 쓱 자리에서 일어서며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도 있고 해서 시작했는데. 나가 좇도 아인 새끼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인자 고마 재미가 없어졌단다. 김형사님이*

보온병을 든 태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태오

(쓱 눈을 치켜 뜨며)

이래 약 올리면. 내가 갈카 줄 거 같나?

속이 들킨 듯 뜨끔해 히는 조형사.

태오가 수작 질을 다 안다는 듯 빙긋이 웃으며

그 정도로 머리를 굴리가 내 상대가 되겠나?

조형사 그만 무시하듯 떠나며

조형사

*영치금 만원 넣어 놔다. 그걸로 빵이나 사 처 묵고 15년 동안 똥통에다
딸딸이나 많이 치라.*

조형사 문을 열고 나가버리자

혼자 남은 태오의 얼굴이 실룩거리며

태오

저. 씨발 자석이요.

61. INT. 교도소 주차장-DAY

주차 된 차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형민.

그때, 좀 전의 카리스마는 오간 데 없는 조형사가 호들갑을 떨며 차에 올라 탄다.

조형사

(가슴을 쓸어 내리며)

와. 오-우 시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형민

뭐라는데?

조형사

(태오 흉내 내며)

그 정도로 머리를 굴리가 내 상대가 되겠나?

이때 울리는 형민의 전화벨이 울린다. 보는 형민
강태오다.

조형사

강태오니까?

형민 가만히 보다가 끊어 버린다.

형민

버티이지.

조형사

끝까지 안 열문요?

형민

어차피 한번은 배팅해야 된다.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지 휴~ 안도의 한 숨을 내쉬는 조형사.
부웅 출발하며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 형민의 차 위로

태오(VO)

가나디리마비아사. 자치카티파하~ 에헤~~

62. EXTINT. 베틀기 SEQ. 태오 감방/형사과/동창화-DAY/NIGHT

구석에 각종 법률서적들이 잔뜩 쌓여있고

벽에 볼펜으로 그린 탕화 같은 것이 붙여진 독방의 좁은 공간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태오

마치 염불을 외우듯 송창식의 노래를 불러대며

태오

으에으에 으어어~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이 내 이빨이 너무
너무 짧고~

CUT TO

범인 검거 실적이 하나도 없는 형민과 조형사의 그래프 막대기.

창문을 통해 안에서 형사과장에게 뭐라고 욕을 먹는 조형사의 모습.

태오(VO)

일업편주에 이 마음 띄우고서 어~ 으에으에 으어어~

형사과장의 방을 들여다보던 형민이 썩 그만 자리를 피한다.

CUT TO

벽에 <부산 해광고등학교 35 회 동기회> 현수막이 붙은 회집

서로 반갑게 악수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중년 남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형민

친구들의 화제에 관심 없는 듯 전화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CUT TO

안경을 쓴 채 독방 창가에 매달려 있는 태오

안경의 색이 잘 변하지 않는다.

CUT TO

횃집 창 밖으로 술에 취한 두 친구가 맥살을 잡고 싸우고 있고
한 친구는 싸움을 말리다 한대 맞고 난리다.
술잔을 기울이며 무심히 보고 있는 형민
친구 하나가 형민 옆으로 다가 앉으며

친구

절미들 좀 잡아가 뿌라. 하 새끼들. 야 난 니가 형사 될 줄은 진짜 몰랐다.

형민

와 저라노?

친구

둘이 서 사업 하다가 고소 했단다. 그래 죽마고우처럼 지내더마는

썩썩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우는 형민

CUT TO

착 하고 비닐 봉지가 뜯어지고 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무는 태오
혼자 독방 구석에 앉아서 우걱우걱 몇 번 씹다가 이내 뿡뿡하고 뱉는다.
이미 곰팡이가 피어 있는 빵
태오가 지겹단 표정의 변기통에다 던져 버린다.

태오

니기마. 씨발 거.

CUT TO

화면 가득 봉봉 박스가 보이고
등이 잔뜩 굽은 오지희 할매 너머로 꾸벅 고개를 숙이며 뛰어나오는 형민

형민

하이고~ 어무야. 이게 우짤 일입니까?

지나던 형사과장이 힐끗 쳐다보자 할머니를 데리고 휴게실로 향하는 형민의 모습 위로

태오(V.O.F)

좀 봅시다

63, INT. 교도소 수사 접견실-DAY

다시 화면이 밝아지면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접견실 의자에 앉아 있는 태오의 모습.
형민이 쓱 볼펜 끝을 수첩에 대고

형민

언제라고?

태오

(태연하게)

4년 전에. 2012년.

형민

봄? 여름?

태오

겨울. 추비가 옷을 두껍게 입고 땡겼으니까.

카메라 뒤에서 형민이 하는 꼴을 모른 척 지켜보는 조형사.

형민

장소는?

태오

대청동에 '뮤즈'라고 내 단골인데 그어서 술 먹고 여관 가던 중에

형민

몇 시?

태오

새벽 네 신까. 다섯 시쯤

형민

처음 보는 놈이고?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태오

골목은 기억 하겠나?

태오

숙소 가는 길이었다니까. 금강장 모텔 (인상을 쓰며) 진짜 아무것도 안
찾아 봤소?

형민

사체는 우쨌노?

태오

태웠더니까.

형민

잘 타드나?

태오

처음에는 뭐. 불길이 세가 내 짐바까지 그을렸는데.

형민

그래가 완전히 태웠나?

잠시 생각을 하더니 설레설레 고개를 젖는 태오

태오

아니, 수도관이 터지가. 고마 중간에 나왔지.

형민

(모른 척)

무슨 수도관?

태오

천정에. (좀 귀찮다는 듯) 아~ 가서 함 찾아보소. 고마.

형민

(반 박자 빨리)

칼은 우쨌노?

찔끔하는 조형사.

태오

(태연하게)

버렸지. 바다에.

형민

어느 바다?

태오

자갈치. 육교 건너 가가.

형민

신발은?

태오

무슨 신발?

형민

니 신발

태오

내 신발? 그거야 뭐

순간 태오가 멈칫 말을 멈추고
카메라 액정을 보다가 뜨끔 하는 조형사.
하공에서 눈길이 마주치는 형민과 태오
한참 동안 형민을 노려보던 태오가 씩 미소를 지으며

와~ 찾아 뵈네. 끝짱구로

그러자 형민이 주저 없이 서류철에서 꺼낸 운동화 족적이 찍힌 사진을 내밀며

형민

어쨌어? 이 운동화

사진을 한번 힐끗 보더니 눈썹이 올라가며 씩 자세를 고쳐 앉는 태오
땀을 피우듯 손으로 바지의 무릎을 툭툭 털며

태오

잘 함 찾아 보소. 인자 형님이 이길라든 그 칼 손잡이랑 운동화만 찾으믄
되네. (카메라를 보며) 유도심문과 협박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 될 수가
없으니까네.

조형사가 얼른 정지 버튼을 눌러 버리자
딱 하고 꺼지는 카메라.

64. EXT. 자갈치 앞 바다/구청 앞-DAY

퐁당 퐁당 바닷물로 들어가는 잠수부들.
갈매기들이 까룩거리는 자갈치 부두에 서 있는 형민
나이가 지긋한 배불뚝이 잠수부 대장.
해녀들이 입는 검은 잠수복에 오리발을 끼고 철벽철벽 형민에게 다가온다.

잠수대장

얼마 정도라고?

형민

(손가락으로 가늠하며)

8 센치. 날은 없고 손잡이만.

잠수대장이 이마에 주름을 만든 채 눈 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잠수대장

8 센치. 나무나 플라스틱이든 금속 탐지도 안되겠네.

형민

그래도 좀 잘 디비 보소. 김사한테는 최선을 다 한 거로 보아야지.

잠수대장

그래. 알았다.

얼굴이 찌그러지며 고글을 쓰는 잠수대장.

이때, 띠리릭~ 울리는 형민의 핸드폰.

CUT TO

구청에서 핸드폰 통화를 하며 걸어 나오는 조형사.

조형사

구청서 나오는 길인데. 간판은 바꿨는데 그때는 그게 '뮤즈'라는 주점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대로고 육교는 2014 년도에 철거 됐고요.

형민(V.O.F)

그래? 여관은?

조형사

예. 장기 투숙자라 여관 주인이 글마를 기억하기는 하는데. (아쉬운 듯) 계속 며칠째 안 들어 오니까 고마 방을 빼뺏고 글마 소지품도 전부 다 버렸다는데요.

CUT TO

아쉬운 듯 한숨을 쉬는 형민

형민

그래. 할 수 없지.

핸드폰을 끄고 돌아 보면

침범침범~ 오리발을 파닥거리며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잠수부들.

65. INT. 경찰서 형사과-DAY

진한 화장에 검을 짹짹 씹으며 앉아있는 40 대 초반의 술집 여사장.

귀를 쫓긋하고 있는 형민과 조형사를 향해

여사장

정확히 그 날짜지는 몰라도. (끄덕끄덕) 예. 가끔씩 와서 혼자 술도 먹고 했습니다.

형민

혹시 신발은 주로 어떤 거 신고 땡겼는지 기억 납니까?

여사장

(웃으며)

하이고~ 그거를 우째 기억합니까? 우리 남편 신고 나간 신발도 모르는데.

서로를 마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짓는 형민과 조형사.

그런데 여자가 씩 인상을 쓰더니

그런데 웃은 기억 납니다.

형민

(반쪽)

예?

여사장

잠바가 하도 품이 나가. 내가 어데서 산 거냐고 물어 봤거던예. 노름해가
땀다든가. 애인이 사줬다 든가...자랑을 해싸서..

형민

무슨 잠바니까?

여사장

무스탕예. 세무.

66. INT.EXT. 무스탕 몽타주-DAY

골목의 허름한 세탁소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나오는 형민과 조형사.

조형사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수선을 했겠소?

형민

니 같은 그냥 버렸잖나? 비싼 무스탕인데.

부평동 일대의 모든 세탁소와 옷 수선 집을 찾아 다니는 형민과 조형사의 몽타주 장면들.

CUT TO

또 다른 수선집으로 들어가는 형민과 조형사.

돋보기 안경에 팔 토사를 낀 50 대 중반의 남자가 고덕거리며

수선주인

예. 몇 년 전에 팔꿈치에 구멍 난 무스탕을 가지 와가 수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선은 좀 드물어가 어렵듯이 기억이 나네요.

자신도 모르게 목젓이 크게 움직이는 형민

조형사가 품 속에서 태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조형사

혹시 이 사람 맞습니까?

돋보기를 끼고 태오의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주인

수선주인

글쎄요. 이래 사진을 보가는.

고개를 가우뚱한 주인 문득 뒤를 돌아 옷을 잔뜩 걸어 둔 곳을 쳐다보며

잠깐. 도로 짐바를 찾아 간 기억은 없는데.

순간 눈이 동그래져 서로를 쳐다보는 형민과 조형사.

67. INT. 검사실-DAY

다소 초조한 표정으로 검사실에 앉아있는 형민

맞은편에서 사건 보고서를 읽고 있는 여검사.

여검사

자백 영상 기록. 주점 시장의 세무 점퍼에 대한 증언. 수선집 주인의 점퍼
수선에 대한 증언

파일 속 점퍼 사진을 보는 여검사가 다소 회의적인 어투로

증거라곤 오래 전에 수선한 이 점퍼 밖에는 없는 셈인데.

형민

그래서 말인데 현장검증을 한번 해 보든 어떻겠습니까?

여검사

네?

형민

뭔가 또 다른 증거를 찾아 낼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딱 하루. 아니, 반나절
만이라도 허락 좀 해 주이소.

여검사

혹시 또 돈 주기로 했습니까?

형민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검사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여검사

설사 그 인간이 동의한다 쳐도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 그만 둔다고 할 테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진행시킬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책상 위의 다이어리를 보던 형민

형민

인자 13 년 남았습니다.

여검사

(미간에 주름)

..네?

형민

제 정년 퇴임까지요.

여검사가 무슨 소리가 쳐다보고

그리고 2 년 있다가. 글마가 출소하든 또 사람을 직일 겁니다. 그때는 제가
더 이상 형사가 아닐 거고요.

물끄러미 형만을 쳐다보는 여검사.

형민이 쓱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니

담담하게 말을 잇는 형민

형민

집에 키우던 강아지 하나를 잊아뿌도 울고 불고 찾아 댕기는데. 글마 손에
죽은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이 세상 누구한테도 아무런 관심을 못 받고 어데서
구더기 밥이 되고 있다는 상상을 해 보니까. 야. 이거. 명색이 경찰인 내가
진짜 좀 쪽 팔리는 거 아이가. 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흐르는 침묵.

잠시 고민에 빠져 있던 여검사가

여검사

만약 형사님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형민

그라운 차라리 다행이지요.

여검사

뭐가요?

형민

고마 세상에서 저 혼자만 바보 되든 그만 아닙니까?

68. INT. 교도소 수사 접견실-DAY

담담한 얼굴로 태오와 마주앉은 형민

앞에 앉은 태오가 알이 붉은 염주를 자신의 손목에 끼워 넣으며

태오

(시큰둥)

그거 해가 뭐 하구로?

형민

그냥 뭐 증거 찾는데 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엄지 손가락으로 염주 알을 굴리며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던 태오

그러다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오

그러지 뭐. 검사님도 참 예쁜데.

형민

약속 했제?

태오

(답답하다는 듯)

형님 분명히 충고하는데 그런 거 해 봐야 내 몬 이기요. 증거 증계 나올

증거가 없으니까~

형민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중에 마음 바뀌지 말고

태오

어? 각서 써야지?

형민

무슨 각서?

태오

일단 착수금 오백 넣고 플라스 다달이 영치금도 이백씩. 그라고 한 달에
두 번은 면회 와가 동생 애로사항도 좀 단디 챙기준다고

물끄러미 태오를 바라보던 형민

잠시 갈등을 하다가 도로 자리에 앉아 펜을 든다.

형민이 A4 지에다 각서를 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빙긋이 웃는 태오

맨날 이래~ 사건은 하나도 못 풀고 돈이나 바쳐 가면서 단서나 구걸하고
댕기고. 행님 아이큐 100 안되지요?

잠시 태오를 노려보던 형민

입술을 꼭 다문 채 종이 위에 각서를 갈겨 쓴다.

69. EXT. 부평동 골목-DAY

부평동 현장의 골목.

형민과 검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와 멈추는 호송 봉고

마치 무슨 행사의 주빈이라도 된 듯 포승 줄에 묶인 채 거들먹거리며 내리는 태오

여검사와 눈이 마주치자 비릿한 미소를 띠우며 꾸부정 인사를 한다.

CUT TO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참가한 순경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번 조형사와 확인했던 살해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마네킹을 가져가는 형민.

형민

자.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합시다.

그러자 고개를 가우뚱 하는 태오

태오

은데, 와 그게요?

형민이 잘 모르겠다는 듯 사건 조사서를 뒤적이며

형민

여기 조사서에는. 전봇대 맞은편에서 비산된 혈흔이 발견됐다고 적혀가.

태오

하~ 참. 요게라니까! 마네킹 들고 일로 오소.

형민의 눈이 썩 여검사와 마주치고

어쩔 수 없이 마네킹을 들고 태오가 향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형민.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여검사.

CUT TO

조잡하게 생긴 마네킹을 잡고 청 테이프가 감긴 칼로 상황을 재연하는 태오

태오

처음에 이래 어깨를 잡고 일단 목에 한 방 주니까.

덜렁거리는 마네킹 팔을 자신의 목에 대충 얹으며

임마가 내 목살을 잡아서

목에 올린 팔이 툭 떨어지고

내가 다시 밀면서 허벅지를 주~ 차가.

그만 옆으로 푹 쓰러지는 마네킹

수갑을 찬 태오가 그만 짜증이 난 듯

아~ 이겨. (형민을 향해) 진짜 사람이 하든 안 되요?

쓱 다시 여검사를 향해 보란 듯 으쓱대는 태오

형민이 근처에 서 있던 좀 어병하게 생긴 의경 하나를 쳐다본다.

CUT TO

목에다 찢어진 박스 종이에 '피해자'라고 써진 풋말을 건 의경

잔뜩 졸은 얼굴로 누워 태오의 손에 머리카락이 잡혀 있다

마치 모두의 시선을 즐기라도 하듯 플라스틱 칼로 의경의 목과 옆구리 등을 찌으며

입으로 파 파 하고 효과음까지 내는 태오

CUT TO

모두들 뒤에서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지하계단 앞에서 선 태오 의경을 밀치며

태오

굴러라!

눈치 보며 버티는 의경

마네킹을 든 조형사.

조형사

나와 봐

마네킹을 계단 아래로 굴리는 조형사
계단을 굴러 팍 부서지는 마네킹
깡깡대며 웃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태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민과 여검사의 시선이 다시 마주친다.

70. EXT. 자갈치 부둣가 DAY

부두의 인부들 몇 사람이 폴리스 라인 밖에서 구경을 하는 가운데
조그만 고무보트가 떠있고 의경 하나가 '칼 손잡이 버린 곳' 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그걸 보고 있던 태오 그만 팍 웃어버리며

태오

에이~ 참. 그이가 아이러니까~

태오가 고개를 젖더니 턱으로 저 멀리 옆쪽을 가리키며

백 미터쯤 더 옆으로 가자. 왼쪽으로~

그러자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경찰들 웅성이며 열심히 노를 저어 보지만
제자리만 빙글빙글 돈다.

태오

아니, 더 왼쪽.

우왕좌왕하는 고무보트를 보며 깡깡대며 좋아하는 태오
고개를 돌려 형민을 뵈히 보다가

태오

형님 선물 하나 더 주까요?

71. EXT. 부두의 후미진 곳 DAY

부두의 한쪽에서 멈춘 봉고와 차들에서 내리는 사람들.

형민이 쓱 주위를 둘러보더니 태오를 향해

형민

내가 앞장 서라. 우리는 모른다 아이가?

CUT TO

수갑을 차고 성큼성큼 앞장서서 걸어가는 태오

그 뒤로 마치 태오의 부하들이 된 것처럼 줄줄 따라가는 형민과 경찰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검사의 표정이 점점 묘해진다.

CUT TO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부두의 한 구석으로 향하는 태오

바닥에 툭 놓더니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해 보인다.

그러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쓱 한번 주위를 둘러 보며

태오

그때는 저게 매점이 있었는데 인자 없네.

태오가 탁 트인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흐으음~ 하아~ 이 공기. 아~~ 좋~네. 흐으음~~ 하~

물끄러미 태오가 하는 짓을 보고 있던 여검사.

슬며시 형민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입을 연다.

여검사

저 높. 신발 사이즈가 몇입니까?

그제야 안도의 눈빛이 되는 형민

72. INT. 법정-DAY

사람들로 가득 찬 법정이 보이고 그 위로 자막 <2017 년 10 월 20 일>
검사와 변호사, 조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보이는 태오와 형민의 얼굴.
곧이어 재판관이 걸어 나오자 모두가 우르르 기립한다.

CUT TO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 화면.
지난번 형민과 면회하던 태오의 모습.

태오(F)

처음에는 뭐. 불길이 세가 내 잠바까지 그을렸는데.

목소리만 들리는 형민.

형민(VO/F)

그래가 완전히 태었냐?

태오(F)

아니. 수도관이 터지가. 고마 중간에 나왔지.

화면에서 눈길을 돌려 현장에서 찍힌 족적 사진을 보는 재판관.
그 아래에 태오가 감방에서 신는 신발 사이즈가 **280** 이라고 적혀있다.

CUT TO

증인석에 서 있는 술집 여사장에게 질문을 하는 여검사

여검사

그날 새벽 강태오가 대략 몇 시쯤 나갔는지 기억 나십니까?

여사장

12시쯤 들어 오가. 새벽 4시쯤 술은 양주 두 병 정도 마셨던 거 같고.

여검사

양주 두 병 그 술을 강태오 혼자서 다 마신 겁니까?

여사장

어디에? 저도 같이 몇 잔 하고.

여검사

당시 강태오가 입고 있던 무스탕 점퍼를 기억하신다고요?

여사장

예. 그때 형사님한테 다 말씀 드렸습니다.

턱을 차켜든 채 여사장을 노려보는 태오

CUT TO

입술이 바싹 마른 옷 수선집 주인
일부러 피고인석을 쳐다보지 않으며

수선주인

예. 뭐. 그 사람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우째 보든 아인 거 같기도 하고
(난처한) 솔직히 제 입장이라 카는 가. 좀 그렇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의 재판관
다소 난감한 표정이 되는 형민과 여검사

CUT TO

증인석에 선 형민에게 질문을 하는 여검사.

여검사

피고인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형민

제가 마수대에 있을 때 알던 심정봉이라는 사람 소개로 처음 뵈었습니다.

여검사

처음 만나서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형민

누가 시켜서 자기가 10년 전에 검은 봉지에 든 사람 시체를 묻었다고 해서
그러면 누가 시킨 거냐 이야기를 해 봐라 하니까. 그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검사

그럼 구체적인 범행을 밝히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겁니까?

형민

예, 그거는 같이 있던 심정봉이한테 확인하셔도 됩니다.

CUT TO

피고인 석에 나뒀다 공손한 태도로 서 있는 태오

그런 태오에게 질문을 하는 변호사.

변호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먼저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김형민 형사 스스로가 계속 수사 접견 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태오

예, 사실입니다.

변호사

김형민 형사가 먼저 '내가 조만간 마약수사대 근무를 끝내고 경찰서로
전출을 갈 것 같으니 다른 형사들에게는 일체 다른 사건들에 대해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협조를 하면 내가 영치금 등 최대한 피고인의 옥바라지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요?

태오

예, 전부 사실입니다.

변호사

이 과정에서 김형민 형사가 내가 수사를 하려면 수사단서가 필요하니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태오

예, 그랬습니다.

변호사

그런데 그 진술서는, 단순 메모에 불과하며 공문서의 효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까?

태오

아니요. 전혀 몰랐고 (순진한 표정) 아~ 내가 이런 거를 써도 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정말이지 같잖다는 표정으로 태오를 쳐다보는 형민

CUT TO

다시 증인석에 선 형민

씩 한번 형만을 쳐다보며 질문을 시작하는 변호사.

변호사

'김형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치금이 총 천만
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는데 이 김형준이라는 사람이 누구니까?

형민

제 친형님입니다.

변호사

그러면 친형이 평소 피고인을 잘 알아서 돈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준 돈을 대신 형님이 넣어준 겁니까?

형민

제가 좀 빌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넣어 준 겁니다.

변호사

그 외에도 증인은 강태오가 현장검증에 응해주면 매달 200 만원의 영치금을
약속한 각서를 써 준 사실도 있지요?

형민

예 있습니다.

살짝 입술을 깨무는 여검사.

변호사

왜 그랬습니까?

형민

솔직히 검사님이 좀 확신이 없으신 거 같아. 현장검증이라도 해서 강태오가
하는 꼴을 직접 보시면 사건을 기소해 줄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가볍게 한숨을 쉬는 여검사.

변호사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기소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형민

제가 딴 부서로 발령이 날 거 같아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변호사

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형민

그야 내가 새로운 범인은 안 잡고 자꾸 하지 말라는 사건에만 매달리니까
그렇지요.

변호사

그건 그렇다 치고 경찰관으로서 국가 일을 하는데 땀땀하게 경찰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쓸 수는 없었습니까?

형민

안 해 주지요 하지 말라는 사건인데.

변호사

그럼 전부 개인 돈을 써야만 한다는 겁니까?

형민

그나마 저는 형편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변호사

그냥 그렇게 한 거다. 그것도 천 만원씩이나?

형민

(후~ 한숨을 쉬며)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이죠

그만 크하고 웃음을 터트리느 조형사.

변호사

증인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준 사실이 있지요?

형민

예.

변호사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형민

옷. 안경. 염주. 그런 겁니다.

변호사

자백을 요구하는 영치금. 또 그런 사물들의 반입이 다 불법인 건 아시죠?

형민

(슬슬 핏대가 서는 형민)

아니아~ 지금 그런 기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일단 형사고 또 이런 사건은 설사 내가 옷을 벗더라도 한번 해 볼만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형사로서는 밝힐 건 밝혀야 되고 또 지가 여러 명을 토막 내가 죽였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형사가 가만 있었어요?

변호사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딱 태오를 쳐다보는 형민

형민

지랄하네 새끼

놀란 재판관이 눈이 동그래지고

좋다! 언제든지 하자 새끼야!

판사

증인 말이 너무 거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잠시 성질을 누르느라 허공을 쳐다보는 형민

자신도 모르게 목젓이 크게 움직이고는

형민

죽은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살해를 당한 사람은 딱
한 번 칼에 찔려 죽은 기 아이라. 여러 번 여러 군데가 찔려서 죽었습니다.
처음 목에 맞아서 큰 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자기 목에서 벌건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도 다 봤을 겁니다.

후~ 하고 한 숨을 쉬는 조형사.

자기를 찌르는 범인의 얼굴이 보이고 또 다시 칼이 자기 살을 찢고 들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게슴츠레 눈을 뜨고 형민을 노려보는 태오

여태껏 일선 형사로서의 제 경험상 한번 피 맛을 본 범죄자는 절대로 못
멈춥니다. 강태오가 감방에서 15년을 살고 나오봐야 인자 오십인데. 아직
사람을 죽일 힘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형민의 얼굴로 점점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가며

저는 강태오가 절대로 다시 사회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주고 경찰에서 짤릴 각오까지 하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CUT TO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법정 안.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는 형민과 태오의 모습이 보이고
곧이어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가는 판사.

판사

판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찔하는 형민
손에 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판사.

검찰의 기소내용과 달리, 피고인 강태오는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목격자도 없어 살해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

법원의 속기사가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또한 합리적인 증거로 인정하기에 합당한 자백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부수적인 증거물이나 정황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표정 관리가 힘들어지는 여검사.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강태오를 고소한 2012년 부평동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에서 우~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허망한 듯 푹 고개를 숙이는 조형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얼굴 근육이 마구 쉴룩 거리는 형민의 얼굴 위로

형사과장(VO)

고소했다고? 니를.

73. INT. 형사과장실-DAY

맨 옆구리를 드러낸 채 기가 찬 얼굴로 형민을 보는 형사과장.

형민

허수진 사건까지 재심 청구 하겠습니까.

딱하단 표정의 형사과장이 옆구리에 혈당 주사를 꼽으며

형사과장

하이고 임마야~ 그라이까 내가 처음부터 머라 하드노?

형민

그거는 그렇고 마수대에는 제가 부탁 좀 드렸습니다.

형사과장

와? 다시 받아 준다드냐?

형민

아니 조형사요. 안 그래도 내 때문에 스크래치 많이 났는데 고마 그게서
좀 거둬 줬으면 해서요. 과장님도 힘 좀 써 주이소.

형사과장

그라운 나는?

형민

장계는 피했는데 발령 통지 받았습디다. 대신 1 파출소로

형사과장

하이고~

74. INT. 마수대 사무실-DAY

조형사가 마수대장 앞에 서 있다.

마수대장

니가 발령 받은 자리 형민이가 양보 한 거는 알고 있나?

조형사

예? 물렸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지는 조형사.

75. EXT. 생곡 현장-DAY

한참 토목 공사중인 중장비들을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는 형민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시뻔건 황토의 속살을 드러낸 채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린 사건 현장.
공사현장 한가운데 갇힌 듯 우뚝 멈춰 선 형민의 모습 위로
투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76. INT. 교도소 변호인 접견실-DAY

한껏 거들먹거리며 마주 앉은 변호사에게 입을 여는 태오

태오

내 분명히 말하는데, 이번에 이 재판은 변호사님이나 내가 이긴 거 아이요.
(너름 최대한 심각한 표정) 이거는 바로 법. 응? 바로 이 법이라카는 거.
정의의 편에 서가 불의를 물리친! 일종에 사회적 메카니즘 같은 거. 예?

77. INT. 경찰서 형사과 NIGHT

아무도 없는 텅 빈 형사과
수사 자료를 하나 하나 챙기고 있는 형민
생곡현장에서 찍은 골반 뼈 사진을 넣으려다 유심히 바라본다.

형민

도대체 누구요 당신? 태오가 당신 죽인 거 내가 다 압니다. 억울하지도 않소?

휴~우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넣다가 고개를 가웃한 형민
서류 속을 뒤적이더니 검시 보고서 사진들 중 하나를 찾아낸다.
천천히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는 형민

78. INT. 국과수 검시소 DAY

모니터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검시관과 형민

검시관

검시 할 때는 저희도 못 봤습니다. 옮기는 도중에 빠진 거 같은데요.

흠에 묻힌 골반 뼈 사이의 T자형 플라스틱이 희미하게 보인다.

79. INT. 호텔 뷔페 식당 DAY

조그만 아이 손이 길다란 연필을 잡으면
와~ 하고 박수를 치는 하객들.
둘이 된 딸을 안은 여검사가 가족과 함께 돌잡이를 진행 중이다.
남편을 보며 웃던 여검사가 문득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식장 입구에서 멍뚱은 표정으로 서 있는 형민의 모습.

CUT TO

호텔 구석에 서서 한복을 입고 있는 여검사와 대화를 나누는 형민

최대한 짜증을 참는 여검사

여검사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오지~~희~~ 할머니하고 유전자가 다르고

형민이 품 속에서 생곡 빼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형민

이거 함 보아소.

형민의 손가락이 빨강게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가리키며

이가 발굴 현장 사진에는 있는데, 검시 사진에는 없습니다.

고개를 가웃하며 살피는 여검사

여검사

뭐죠? 이게.

형민

루릅니다. 여성용 피임기구요.

다시 사진을 보는 여검사. 그 위로

형민(VO)

수색영장 좀 발부해 주십시오

80. INT. 마수대 사무실-DAY

뭔가 퍼즐이 맞추어 지는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는 가운데

시술자 명단과 산부인과 전화번호부를 놓고 빨간색 펜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조형사.

조형사

(슬쩍 주변 눈치를 보며)

네 수고하십니다. 거기 수도 산부인과죠?

81. INT. 경찰서 형사과 DAY

책상 위에 올려진 T자형 루프의 제조사의 산부인과 판매 기록들.

어딘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형민.

형민

아니요. 금속 말고 플라스틱 (사이) 그거는 몇 년도부터 나온 겁니까?

82. EXT. 영도 산부인과 앞 DAY

오래된 산부인과 건물을 나서는 조형사.

한 손에 서류를 든 채 통화를 한다.

조형사

찾았습니다. 시술자 이름 박미영 39세.

83. INT. 경찰서 형사과 DAY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박미영의 실종발생 보고서>.

그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목젓이 크게 움직이는 형민.

벌떡 일어서 나가는 형민.

84. INT. 돼지국밥 집 DAY

돼지국밥 집에 머리를 맞대고 앉은 두 사람.

종이로 출력된 <실종 수사보고서>가 놓여 있고 서류 칸에 박힌 날짜 <2006년 9월 5일>

형민

이 거 함 보라.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하다가 박미영이 실종된
그 날부터는 단 한 차례도 통화를 한 사실이 없어.

조형사

그러면 이기 태오 변호란 말입니까?

조형사

아니 강숙자.

조형사

예?

형민

즈그 누나 명의로 된 폰을 썼다. 그제다가 당시에 강태오가 직접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고.

조형사

예에? 근데 풀려났다 말입니까?

형민

실종신고로 접수가 된 거니까 조사만 받았겠지. 당시에 사체도 발견 된 것도
아니고

조형사

아시파. 그 당시에만 수사를 잘 했어도..

강숙자 명의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형민.

통화 기록들 가운데 <2006년 8월 26일>의 <333-3333> 다음의 통화 기록 중에서

<김옥철>라는 이름을 보고 고개를 가웃하는 형민

형민

김옥철?

INSERT- <화상> 지난번 차 안에서 형민의 물음에 답하던 정봉.

정봉

김옥철이라고 남포동 설렁탕 아들 내미! 노름해가 즈그 가게 다 팔아 묵고.
와 모릅니까? 글마가 태오를 소개 시켜 주드라고예.

85. EXT. 마산 창원 톨게이트- NIGHT <화상>

<부산-창원>간 고속도로

담배를 피며 운전을 하는 태오 옆에서 여전히 커다란 생수 병을 통째로 마시고 있는 김옥철
운전을 하던 태오가 할끗 옆을 쳐다보며

태오

와 그래 물을 처 묵노? 패 쫘우다가 화장실 간다고 지랄하구로

김옥철

자꾸 묵하는데 우짜노? 갈증이 나가.

이때 전방 유리 너머로 멀리 경찰들이 검문을 하는게 보이자

태오

어? 씨바. 내 술 마시가 불문 나올킨데.

김옥철

(화들짝)

뭐? 야 내는 약 판 거 수배 뒀다 잡히면 좇 된다. 세이라! 세이라~

태오

이게서 우째 세우노? 씨발놈아~

다급해진 김옥철이 그만 차 문을 열고 몸을 던져 밖으로 굴러 떨어지자
당황한 태오 역시 잠시 갈등을 하다가 그만 조수석의 문이 열린 채 차를 갓길에 몰아간다.
그런데 멀리서 그 모습을 본 경찰관 하나가 뺑~ 뺑~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온다.
각 차를 세운 다음 키를 뽑아 들고 내려 근처의 숲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태오
쫓아 오던 경찰이 뺑~ 뺑~ 호루라기를 불며 서라고 고함치지만
죽어라 숲으로 도망을 치는 태오

김옥철(VO)

나중에 통화하니까. 다시 부산까지 걸어서 왔다드라고예.

86. EXT. 성인 오락실-NIGHT

오락실 문방들이 실실 형민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형민과 정봉 앞에서 큰 생수 병을 주둥이에 박은 **김옥철**
험한 눈으로 물을 벌컥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뽕쟁이를 연상케 한다.
카~ 하고 물을 마신 김옥철이 빠죽 나온 입술을 씹룩거리며

김옥철

어데서 돈이 났는가 신사임당을 몇 디발 들고 있었어예.

형민

원래 친한 사이가?

김옥철

노름하다가예. 인간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옆에 있던 정봉이 괜히 오바를 하며

정봉

옥철야. 아는 거 있으면 다 말씀 드리라. 이 행님은 진짜 인간 그 자체다.

형민을 향해 씨익 누런 이빨을 들어내는 정봉.

김옥철

완전 열이 채이가 지랄 지랄 하더라고요~ 잡히른 직인다 카멘서. 그래서 저도
훗김에 고마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자라캬지예.

형민

집? 어느 집?

김옥철

즈그 집. 아냐. 즈그 애인 집요

형민

애인? 박미영?

87. EXT. 영도 산동네 미장원-NIGHT<회상 포함>

잔뜩 겁에 질린 40 대의 미장원 원장이 황급히 달아나고
난장판이 된 미장원에서 손에 부엌칼을 쥔 채 길길이 날 뛰는 태오

태오

나기미 씨발 거. 확 다 죽이 주까. 영? 고마 일로 온냐! 배때지! 확 쏘시주께~

그에 못지않은 악다구니를 쓰는 박미영

박미영

그래! 죽이라~ 죽여 보라~ 이 미친 새끼야. 인자 내 차까지 다 팔아 묵냐!!

CUT TO

이제 50 대가 된 미장원 원장이 동네 중년 여자의 머리를 맡아주며

원장

맨날 그래 싸우는 기 다반사니까 뭐. 그러다가 또 좋아 지내고. 참말로 고마
그 날도 그러려니 했지예

형민

실종신고는 직접 하셨지요?

원장

보름이 남게 연락도 없어서 내가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경찰도
찾아 오고 하드마는 나중에는 고마 내 몰라라 해 뿌고

형민

강태오 하고는 우째 만났는지 아십니까?

원장

(가우똥)

처음에 어데. 연산동 나이트에서 만났다 카든가?

INSERT-〈화상〉 형사과 화이트 보드 위에서 적힌 리스트 중 2 번 사건을 지우는 형민의 모습 리와인드

2 서원택씨 할때 연산동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성 살해후 여기 저기 나뉘어버림

후-우 한숨을 내쉬는 형민

형민

박미영씨가 원래 부산 사람입니까?

원장

아니예. 고향은 대군데 남편랑 이혼하고 아 하나만 데리고 와가 그때부터
부산 살았다 아입니까?

형민

지금 아는 어데 있습니까?

원장

인자 아 아이지요 다 컸을 긴데.

88. EXTINT. 박미영의 집-NIGHT<화상>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어린 최동주.
문 밖에서 갈등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통화를 하는 박미영

박미영

그라믄? 도로 차를 찾았단 말이가? (사이) ..드라이브? 무슨 드라이브?

잠시 후 박미영 미닫이 문을 열고 달랑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놓으며

동주야. 배 고프면 짜장면 시켜 무으라 알았제?

탁 미닫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박미영
덩그러니 방바닥에 놓여있는 만 원짜리 한 장.
엄마가 닫은 문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어린 최동주.

89. EXTINT. 달리는 차 안-NIGHT<화상>

태오가 핸들을 잡고 있는 택시 안.
조수석에 앉은 박미영이 매우 망설이는 듯

박미영

솔직히. 당신 좋은 사람인 거야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태오

그래서? 인자 좀 풀렸나?

박미영

그래 뭐 풀리기야 풀렸지. (망설이다) 그거는 그런데.

태오

그런데 마?

박미영

솔직히. 인자 동주가 사춘기가 되는 거 같고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가

태오

뭐가 힘들어?

박미영

자기랑 지내는 거.

할곳 옆을 돌아보는 태오

박미영이 굳게 작심을 한 듯

고마 도로 대구로 갈라고. 아 아버지한테서 자주 연락도 와 썼코 (눈치를
보며) 당산은. 개안. 켜나?

잠시 동안 아무런 대꾸가 없는 태오

그런 태오를 불안한 눈길로 힐끔거리는 박미영

여전히 전방만 응시하던 태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태오

그래. 해라메.

박미영이 여전히 불안한 눈길로 쳐다보면

여전에 칼국수 집에서 보였던 태오의 섬뜩한 눈빛이 드러나며

언제 갈라고?

불안한 눈으로 태오를 쳐다보는 박미영의 얼굴 위로 탈탈탈탈~ 소리가 들려오고

90. INT. 어딘가의 욕실 NIGHT <화상>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낡은 탈수기.

시뻘건 핏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모습 위로 TV 예능 프로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덤덤한 얼굴로 주방용 칼과 시뻘건 피가 묻은 욕조를 샤워기로 씻어내는 태오

91. EXT. 박미영 사체 유기 몽타주 NIGHT <화상>

덜덜거리며 질질 끌려 가는 여행용 캐리어.

<서원> 마크가 붙은 택시의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는 태오

곧이어 프레임에서 빠져 나가는 택시.

CUT TO

한 밤중에 광안대교를 향해 택시를 몰아가는 태오

광안대교가 보이는 이기대 갯바위 위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내던지는 태오

풍덩~하고 검푸른 바다 물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색 캐리어.

CUT TO

낙동강 선착장. 검은 비닐 속 발 뒤꿈치를 움켜 쥐는 태오의 손

풍덩~하고 시커먼 바닷물 위에 빠지는 검은 비닐 봉지.

CUT TO

파파파파~ 흙먼지를 일으키며 생곡 가달 마을 입구에 멈추는 서원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주변의 인기척을 확인하는 태오

CUT TO

멀리 무덤이 보이고 깊게 판 구덩이에다 검은 비닐 속에서 뭉클하고 큰 덩어리를 쏟아 놓는 태오

툑툑툑 삽으로 덮은 흙을 마무리 한 다음

비닐 봉지에 라이터 기름을 붓더니 확 불을 붙인다.

이마의 땀을 닦더니 주변을 돌아보는 태오의 얼굴이 불빛에 어른거린다.

그 모습 위로 지이잉~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92. INT. 목재공장-DAY

지이잉~ 톱날이 목재를 잘라나가며 하얀 톱밥이 사방으로 휘날리고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인 20대 초반의 남자 최동주.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른 채 계속 나무 선반을 그라인드를 돌리는 최동주.

그 뒤로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형민.

형민

최동주씨?

묵묵히 계속 그라인드만 돌리던 최동주.

툑 기계를 멈추더니 썩 형민을 돌아보는 모습 위로

형민(VO)

와 찾아 볼 생각을 안했습니까?

슬며시 고개를 들면 눈가에 축축히 맺혀있는 눈물.

최동주

사람들이 다. 어. 엄마가 아. 아저씨하고 도망갔다고 내 뇌두고 도. 둘이 도망간

거라고 해가. 그러가. 어어. 약속로 마. 마. 미버가. 어. 엄마가.

표정이 잔뜩 굳은 채 흐느끼는 최동주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형민

93. EXT. 도로/달리는 차 안-DAY

묵직한 음악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 위를 달리는 형민의 차.

어디론가 묵묵히 핸들을 돌리는 형민

94. INT. 강숙자의 집-DAY

1995 년 실종된 배들과 선원명단이 적힌 서류가 앞에 놓여있고

마루에서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강숙자.

그런 강숙자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여는 형민

형민

95 년 이후 아버지의 승선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버지 강석주씨는 배 안
탔습니다. 우째 된 겁니까?

강숙자

할말 없습니다. 고마 가 주아소

형민

강숙자씨도 공범 아닙니까?

몹시 당황하는 강숙자.

강숙자

무 무슨 소립니다. 내는 모릅니다. 진짜...아닙니다. 내는.

형민

이미 공소시효는 다 지나서. 법적으로 우째 해 볼라고 찾아 온 거는 아닙니다.

형민의 말에 극도로 갈등하는 강숙자.

문득 잔뜩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95. EXT. 어린 태오 집-DAY<화상>

집 마당 수돗가에서 혼자 등목을 하고 있는 어린 태오 그 위로 자막 <1995 년 여름>

그때, 고등학생 교복의 강숙자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마루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듯 엮어진 밥상과 소주병 깨진 반찬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다.

수돗물로 정강이에 핏자국을 씻어내다 힐끗 누나를 쳐다보는 중학생 태오

얼굴에 물음표가 생긴 누나가 태오에게 다가오며

고등숙자

아부지는?

강태오

배 터러 갔다.

몸에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그만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태오

수돗가에 벗어놓은 피 묻은 태오의 셔츠

CUT TO

좌악 물을 붓고 빨래판 위에 올려지는 셔츠

뽁뽁뽁 비눗칠을 해대는 고딩 강숙자의 손에 힘이 더해질수록

빨래판에서는 거품에 섞인 핏물이 새어 나온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계속 손을 멈추지 않는 고등학생 강숙자.

CUT TO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서 있는 형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은 강숙자가 눈물을 흘리며

강숙자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저 저도 차라리 아버지가 없어지기를 바랬으니까.
내 입만 딱 닫고 살자. 으흐후

흐느끼며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강숙자.
그 모습을 보며 후우 한숨을 내 쉬는 형민.

INSERT-<화상> 화면 가득 잡히는 글씨의 클로즈업

1. 어릴 때 50대 남성 살해후 숲 속 에유기

96. INT. 교도소 접견실-DAY

빠리한 얼굴을 한 채 접견실 의자에 앉아 있는 태오.
그의 시선에 교도관과 얘기를 나누는 형민의 모습.
잠시 후 이야기를 마친 형민이 다가오며 슬쩍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CUT TO

착. 라이터 불이 켜지고
손에 담배를 끼운 채 좀 의아하단 얼굴로 쳐다보는 태오.

형민

모른 척 해달라 했다.

힐끗 한번 교도관을 쳐다본 태오가 담배를 물자 불을 붙여주는 형민.
빠끔거리는 태오
가만히 지켜 보는 형민
금새 접견실 안이 연기로 가득 차고

태오

고소 취하해 달라고 이라는 거든 다 소용없소. 고마 각서에 쓴 대로 몇 년
잘 이행하든. 그때 가서 함 생각해 보겠요.

형민

니 혹시 '분노의 게이지'라는 말 들어봤나?

태오

(후~ 연기를 뱉으며)

게이지? 케이스. 아이요?

형민

(웃으며)

옛날에 니가 영도에 살던 그 애인랑 싸웠던 그날. 참 그날이 니한테는
어지간히 재수가 없던 날이었더라.

태오

(눈이 가늘어지며)

무슨 소리요?

형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몇 개월 동안 서로 잘 지내던 여자를 직일
정도로 니 분노의 게이지가 그렇게 높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의
니 행적을 쫓다 보니까 고마 대중 답이 나오네.

점점 안색이 변하는 태오

창원까지 도박하러 갔다가 불심검문에 걸리서 같이 간 뺑쟁이는 혼자
도망을 치려고. 나는 한 밤 중에 고속도로에서 경찰들 눈을 피해가 택시도
못 잡고 부산까지 걸어 오는 바람에. 고마 열을 있는 대로 받았지.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는 태오가 일부러 입술을 오므려 연기 도너츠를 만들며

태오

무슨 껌 씹는 소리요?

형민

(아랑곳 않고)

주머니에 돈은 있겠다. 그 전에 내가 속임수를 써가 못 가던 노름방이라도
걸라 했는데 박사장이 못 오게 하나까 일본도를 들고 찾아 갔다가 오히려
두들기 맞고

진하게 타 들어가는 태오의 담뱃불.

그레가 결국 애인 일하는데 갔다가 차를 팔아 묵었다고 오해한 여자랑
대판 싸움도 벌어진 거지.

후~ 하고 허공에 연기를 뿜는 형민

뭐 이쯤 되든. 니 분노의 게이지가 충분히 높아 지가 결국 살인을 저지를
수 밖에는 없는. 아무튼 그 날이 니한테는 억수로 재수 없는 날이었더라고.

씩 태오를 쳐다보는 형민

박미영아.

씩 안색이 굳는 태오

형민

내가 쓴 자술서 2 번. 서원택시 할 때 연산동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자.
내가 생곡에서 찾아 낸 바로 그 골반 뼈의 주인공.

형민의 얼굴에 후우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태오

하지만 아랑곳 않고 계속 말을 잇는 형민

아들이 힘들게 태어나는 바람에 남편이랑 일찍 이혼하고 영도에서 미장원
일 하면서 살았지.

형민이 씩 루프 사진을 보여주며

형민

그런데 여자가 더 이상 임신을 안 할라고 몸에 루프 시술을 한 거 까지는 말을 안했는갑데. 그러니까 니가 그냥 배꼽 밑에만 잘라가 버렸잖아.

형민을 노려보며 얼굴이 썩룩 거리는 태오

태오

땡~!! (비릿하게 웃으며) 다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 보아소.

형민

칼국수 집에서 나를 처음 만난 날. 그 날도 니한테는 참 재수가 없는 날이었다. 와 하필 내 같은 형사를 골랐노?

후~ 하고 깊은 한숨을 쉰 형민의 눈에 짙은 화한이 깃들며

옛날에. 그 옛날에. 그그 누나가 그때. 그그 아버지 실종신고만 했었더라도. 그 다음 사람들은 안 죽었을 지도 모르는데. 그자.?

저주와 경멸이 서린 채 형민을 노려보는 태오

태오

그런데 우짜노 공소시효가 지나도 한 참 지났는데. 김형사가 더 잘 안다 아이가?

형민

사람 마음에는 공소시효라는 거는 없다. 임마!

97. INT.EXT. FINAL MONTAGE-DAY

쥐 죽은 듯 조용한 재판정

증인석에 서 있는 최동주.

검사와 변호사, 조형사 등의 얼굴들이 보이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형민의 얼굴.

방청석의 사람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 보고 있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태오가 뻘뻘 동주를 노려보는데

최동주
(손가락을 들어)

저저 사람 마 맞습니다

술렁이기 시작하는 재판정 그 위로

판사(V.O/F)

판결합니다

CUT TO

맑은 유리 잔 속으로 쿵쿵 따라지는 소주.
그 위로 이어지는 판사의 목소리

판사(V.O/F)

피해자 박미영의 유골에 골절 및 인위적인 절단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UT TO

방청객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

판사

..피해자를 살해한 수범 역시 상당히 잔혹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묵묵히 판결 내용을 듣고 있는 형민.

더욱이 피고인 강태오는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싸늘한 눈빛으로 판사를 노려보는 태오

범행일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역이 있는데 그 이후 두절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간 이후 실종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종 및 사망은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UT TO

달랑 손님이라곤 형민 밖에 없는 밀면집

형민이 짬뽕 소주를 들어키고 안주로 밀면을 한 젓가락 먹는다.

판사(VOF)

특히 2017년 8월 살인죄 사체는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기까지 해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이 확연히 드러났다.

CUT TO

무심히 고개를 돌리다 태오와 눈이 마주치는 형민

뻘뻘 형민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이는 태오

판사

..따라서 피해자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기에 본 법정은 피고인 강태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와~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조형사.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그만 얼굴이 실룩거리는 형민.

최동주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린다.

여검사와 진한 악수를 나눈 형민이 고개를 돌리면

교도관들이 태오를 끌고 법정을 빠져 나간다.

CUT TO

파파파파- 카메라 후레쉬들이 터지는 가운데 법정 복도를 걸어 나오는 형민
반짝이는 후레쉬 속에서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려 애쓰는 형민이 뚜벅 뚜벅 복도를 걸어간다.

CUT TO

밀면집 벽에 걸려 있는 오지희의 중학교 시절 빛 바랜 수영 대회 사진들과 메달들.
그것을 보며 소주 한잔을 쭈욱~ 들이키는 형민

98. EXT. 낙동강 풀 숲 황혼

저 멀리 매직아워의 황혼이 스카이 라인을 물들인 낙동강 풀 숲.
태오가 오지희를 죽였던 바로 그 장소.
잠시 후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오는 형민의 차.

CUT TO

길 옆으로 나 있는 조그만 뱃길로 어부의 보트가 물살을 가르고 지나며
뭔가 하는 표정으로 형민을 쳐다보는 어부의 검붉은 얼굴.

CUT TO

낙동강 풀 숲 건너 도심이 훤히 보이는 뚝방길 위에 우뚝 선 형민.
손에 든 오지희의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그러다 지그시 눈을 감더니 나지막이 혼잣말을 노끼리는 형민.

형민

어데 있노? 나.

주변을 숙 둘러보는 형민의 모습에서
천천히 카메라가 하늘 위로 뜨는 것과 동시에 묵직한 엔딩 음악이 흘러나온다.

[2018년 현재살인범 기택은 〈기택〉은 무기장여미 전장치부착30년형을 선고 받은
복역중이고, 김형민 〈기택〉 형사는 부산지방경찰청미제1대 전담팀에서 근무하며
살인범 기택은 〈기택〉의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다.]

<끝>